

# 古時調 教育의 實態와 指導法에 관한 研究

— 濟州道 中學校를 中心으로 —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張 南 洙


指導教授 玄 容 駿


1984年 月 日

張南洙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審 梁淳玟 

副審 玄容駿 

副審 梁重海 

1984年 7月 日

# 目 次

I. 序 論 .....	1
II. 本 論 .....	4
1. 古時調의 樣相 .....	4
가) 時調의 種類 .....	4
나) 時調의 形式 .....	6
다) 時調의 內容 .....	8
라) 作者와 年代 .....	10
2. 古時調 教育의 實態 .....	11
가) 古時調 教育의 一般的 傾向 .....	11
나) 教育 實態 .....	13
다) 學習 實態 .....	16
3. 指導의 實際 .....	20
가) 古時調 文學의 一般的 指導傾向 .....	20
나) 1學年 古時調 指導 .....	23
① 指導方向   ② 學習目標   ③ 指導의 實際	
다) 2學年 古時調 指導 .....	31
① 指導方向   ② 學習目標   ③ 指導의 實際	
라) 3學年 古時調 指導 .....	45
① 指導方向   ② 學習目標   ③ 指導의 實際	
III. 結 論 .....	55
○ 參考文獻 .....	57
○ Abstract .....	59

## I. 序 論

古典 敎育은 어느 나라에서나 學校 敎育의 가장 重要한 일부가 되어 왔다. 이 敎育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자기 民族의 傳統的 思想과 感情을 이해하게 되며 言語와 文學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이 이해와 사랑은 그들의 人格을 形成하고 豐富한 내일의 人生을 創造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특히 古時調 學習은 學生들의 情緒를 醇化하고 國民精神을 培養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先人들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높고 깊은 德性和 人格을 形成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sup>1)</sup>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時調는 우리 民族만이 가지고 있는 詩歌形式中的 하나이다. 時調가 우리의 生活과 그 時代와 民族과 호흡을 같이 하여 民族의 思想과 感情을 표현하는 固有한 文學形態로 살아온지도 벌써 7百年이나 된다?<sup>2)</sup>

時代가 다르고 社會가 變遷함에 따라 우리의 意識構造가 많이 달라졌지만은 時調가 오늘의 우리에게 感銘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글에 담긴 思想이나 內容이 우리 民族의 傳統的 思想과 感情을 反映하고 있으며, 先祖들의 生活相이나 人生觀 및 價値觀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指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릇 한 文學形態가 오랜 生命을 누린다는 것은 그것이 文學으로서의 價値內容을 지녔다는 것과 그것이 民族 生理와 生活에 잘 어울렸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이 된다. 三國以來로 輸入된 漢文 生活 속에서나마 漢詩에 못지 않게 鄉歌나 別曲이니 하는 詩歌的 系譜를 이어 時調 文學에까지 發展되어 言文一致의 文學的 精華로 提高되었음은 우리의 獨創性和 文化的 自主性を 여실히 말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sup>3)</sup>

國文學의 詩歌形式이 時代와 함께 生滅했지만 時調는 그 어느 詩歌文學보다 꾸

---

1) 鄭炳昱, 時調文學事典(新丘文化社, 1982), pp.17 ~ 18.

2) 李秉岐·白鐵, 國文學 全史(서울:新丘文化社, 1970), p.124.

3) 李泰極, 時調概論(새글社, 1971), p.25.

준히 脈絡을 이어 온 傳統的 民族文學이요, 우리 民族만이 가지고 있는 固有한 民族詩歌인 時調를 바르게 教育하는 것은 우리의 傳統的 價値 繼承의 方向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教育資料가 되고 있다.<sup>4)</sup>

李泰極님의 「時調概論」 序論에서

“國文學의 여러 장르중 가장 두르려진 것은 時調文學이다. 그 歷史로 보거나 形式과 內容上에서 보더라도 훌륭한 存在價値를 갖추고 있다. 原始綜合藝術에서 分立된 鄉歌로부터 別曲에 이르기까지 時調와 歌辭로 내려오는 동안 完全한 定型詩로서 整齊된 것은 이 時調다. 또, 그것이 3章6句 44字 內외의 總字數로 된 우리 나라 固有의 詩形임을 알 때 더욱 오붓함과 대견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sup>5)</sup>

라고 하여 時調는 우리 民族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우리의 思想과 感情을 솔직히 표현한 民族文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古時調는 歌詞와 曲의 兩面을 가지고 近朝 5百年間의 代表的인 자리를 堅持한 것도 자랑이거니와 우리 國民 모두가 참여한 民族文學이라는 점에서 그 價値가 높다 하겠다.<sup>6)</sup> 우리의 思想과 感情을 吐露하는 古時調를 읽음으로써 지은이의 마음 속을 들여다 보며 그 人品을 본받을 수도 있고 그때 그때의 社會的 狀況과 祖上들의 精神世界를 이해하고 繼承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時調는 그 어느 詩歌文學보다 꾸준히 脈絡을 이어온 民族文學이요, 作家와 作品 數도 多様하다. 君王을 비롯하여 兩班·庶民·妓女 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친근히 創作하였으며, 創作契機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卽興的으로 읊어지는 것이므로 조금의 虛飾이나 사전 設計가 필요 없다. 오직 담담히 對象을 觀照하고 제 情緒를 밖으로 퍼내면 한 首의 時調가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創作過程을 밟았다.<sup>7)</sup> 또 오늘날까지 그 命脈이 이어지고 있으며, 古時調의 教育도 國民學校에서 부터 大學까지 빼놓을 수 없는 領域으로 굳혀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古時調에 관

4) 鄭炳昱, 前揭書, 序文 參照.

5) 李泰極, 前揭書, p.25.

6) 李秉岐·白鐵, 國文學全史(新丘文化社, 1970), pp.97 ~ 99.

7) 李相寶, 名時調 鑑賞(乙酉文化社, 1971), p.4.

한 研究는 時調의 一般論에서부터 文學論, 時調史, 內容 및 主題, 作家論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많은 研究가 進行되었으나, 古時調 教育의 實態 및 指導方法에 관한 研究는 아직 미흡한 實情이다. 특히 古時調 指導方法에 관한 研究는 作家 및 작품의 內容을 중심으로 하는 指導方法은 다소 研究되고 있으나, 教科書에 收錄된 作品을 중심으로 한 古時調 教育의 實態 및 指導方法에 대한 研究는 전혀 없는 실정이며, 本稿에서는 一線 現場 教育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中學校 教科書를 중심으로 古時調를 研究했다.

古時調 研究에는 文學理論, 文學史, 文藝思潮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또한 作品 指導에는 作品 背景, 創作 動機, 文體, 表現, 韻律 등을 分析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本稿에서는 中學校 教科書에 收錄된 古時調 作品으로 局限했기 때문에, 먼저 中學校 教科書에 실려 있는 作品의 樣相을 살펴 보고, 現場에서의 古時調 教育 및 學習의 實態를 파악한 후, 古時調 指導의 바람직한 方法을 實際적으로 提示하는데 그 意圖가 있다.

作品 指導의 實際적인 方法에 있어서는 學年別 指導方向 및 學習目標를 먼저 제시한 다음 作品 指導의 實際에 있어서는 訓話的 註釋이나 語法 등 부분적이고 分析的인 面을 피하고, 作品 鑑賞을 통해 古時調 作品을 吟味하게 하여 學生들의 바람직한 自我를 형성하게 하고 올바른 價値觀을 가질 수 있도록 指導하는데 主眼을 두었다.

本 研究를 推進하는 동안 中學校 教科書가 改編되었으나, 新舊 教科書에 실려있는 古時調 作品은 한두 作品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作品이어서<sup>8)</sup> 83年度版 舊教科書 體系에 따라 研究를 계속했다. 84年度 1學期 教科書는 나왔지만, 2學期 教科書는 아직 나오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2學期 教科書가 나오면 研究를 계속해서 補完하기로 하겠다.

---

8) '84年度版 新教科書와 '83年度版 舊教科書를 比較.

## II. 本 論

### 1. 古時調의 樣相

#### 가) 時調의 種類

時調의 種類는 文學的인 形態에 따라 平時調, 엇時調, 辭說時調의 3種類로 나누는 반면, 音樂的인 形態로는 平時調, 중어리 時調, 지름 時調, 辭說時調의 4種類로 흔히 나눈다.<sup>9)</sup> 그러나 本稿에서는 文學形態上的 分類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 ① 平時調(時調, 短時調, 短形時調)

時調로서 가장 基本的이며 最初의 時調 形式으로 3章 12句로 되었고, 字數는 初章이 3·4·3(4)·4, 中章이 3·4·3(4)·4, 終章이 3·5·4·3으로 되어 있어 總字數가 45字 내외로, 時調의 原形이라 할 수 있으며, 現存하는 古時調 가운데에는 平時調로 된 작품이 가장 많다.<sup>10)</sup> 高麗末부터 李朝初期까지 지어진 時調는 모두가 平時調다.

##### ② 엇時調(中時調, 中形時調)

엇時調는 平時調의 基本 形式보다 한 句가 늘어난 時調를 말한다. 대체로 肅宗以後에 지어졌고 平民이나 庶民의 作品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③ 辭說時調(長時調, 長形時調)

辭說時調는 平時調의 基本 形式보다 2句 이상 길어진 時調로 英正祖 이후에 생겨났으며, 平民 庶民들이 字數에 구애됨이 없이 赤裸裸한 人間生活을 솔직하게 읊은 점이 특징이다.

위의 種類에 따라 中學校 教科書의 作品을 分類해 보면 다음과 같다.

9) 李泰極, 전게서, pp. 69 ~ 78.

10) 秦東赫, 古時調文學論(螢雪出版社, 1981), p. 23.

〈표 1〉 中學校 教科書에 收錄된 古時調 種類

學年 \ 種類	平 時 調	옛 時 調	辭 說 時 調	連 時 調
1 學 年	7			1 (五友歌 6)
2 學 年	8			
3 學 年	8	1		
計	23	1		1 (五友歌 6)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學校 教科書에 실려 있는 古時調는 平時調가 23首, 옛時調가 1首, 連時調(五友歌)가 1首로 모두 25首의 古時調가 실려 있으나 辭說時調는 1首도 없다.

'84 學年版 1 學期 新教科書에는 2 學년에만 古時調가 수록되어 있다. 1,3 學年은 2 學期 教科書에 古時調가 收錄될 것이라 보아진다.

그러면 2 學年 新舊 教科書에 수록된 古時調를 비교해 보면

〈표 2〉

구 분	平 時 調	옛 時 調	連 時 調	비 고
新教科書	9		1 (五友歌)	黃眞伊作品 1首加
舊教科書	8		1 (五友歌)	

新舊教科書에 변함없이 共通的으로 收錄된 작품은 7首이고, 改編된 작품은 舊教科書에 실렸던 金宗瑞 작품이 빠진 대신 南怡의 작품이 실렸다. 그리고 追加로 新教科에는 黃眞伊 작품이 하나 더 실렸다. 그런데 南怡의 작품은 舊教科書 3 學年에 실렸던 작품이다.

1983 年 中學校 國語教科書에 收錄된 詩 가운데 古時調가 차지하는 比率은 다음과 같다.



〈표 3〉 古時調가 차지하는 比率

詩 區分	古 時 調	現 代 時 調	詩	計
作 品 數	25	9	51	85
比 率	29.5	10.5	60	100

#### 나) 時調의 形式

時調가 우리 詩歌를 대표하는 定型詩라고 한다면 그 特徵을 形式上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그 形式이 대중의 嗜好와 요구에 맞고, 또 內容이 대중의 心琴에 共感되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과거의 여러 形態의 詩歌는 각각 그 사대시대에는 適合한 存在로서 生滅되었다. 그러나 時調만은 유독히 오늘날까지 그 生命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를 李泰極님은 「時調概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時調의 表現은 眞實하고도 表朴하다. 즉 우리 民謠가 가진 素朴性和 眞率性만을 그 대로 이어 받아서 그 表現上에서나 韻律面에서 그러한 점을 感得할 수 있다. 民謠가 가지고 있는 3·3調나 3·4調나 4·4調의 律格도 時調가 그대로 받았다.”<sup>11)</sup>

라고 하여 그 形式이 民謠에서 유래됨을 말하고 있다.

時調의 形式을 學者에 따라서는 3章6句體(李泰極), 3章8句體(李秉岐), 3章12句體(趙潤濟, 李殷相) 또는 句規定을 떠나서 8音步 3行의 詩라고 리듬의 단위로만 보는 학자(李能兩)도 있으나, 時調가 3章으로 구성되었다고<sup>12)</sup> 하는데 공통성이 있으며, 또 3章이라고 하는 대신 3行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이것은 별문제가 아닌 줄 안다. 그러므로 時調는 初章, 中章, 終章의 3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形式의 특징이요, 이는 옛時調나 辭說時調에도 다를 바가 없다. 이와 같이 시조 句에 대한 개념 규정은 구구하지만 3章6句說과 3章12句說이 가장 지

11) 李泰極, 전계서, p.34.

12) 柳聖圭, 時調文學入門(現代時調社, 1983), pp.233 ~ 234.

배적인데<sup>13)</sup> 本稿에서는 時調의 形式을 3章12句로 보고, 中學校 教科書에 실려있는 作品의 字數分布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中學校 教科書 作品의 字數 分布

字數	初 章				中 章				終 章			
	1句	2句	3句	4句	1句	2句	3句	4句	1句	2句	3句	4句
2	4		3		6						2	
3	23	1	16		20	11	17	1	29		1	23
4	2	20	10	28	3	17	11	27		1	25	3
5		7		1		1	1	1		21	1	3
6		1								6		
7										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教科書 作品 29首는 字數分布가 破格的임을 알 수 있다. 初章 2字로 된 것이 첫째 句가 4首 세째 句가 3首이며, 中章 첫째 句가 2字로 된 것이 6首, 終章 둘째 句가 6字로 된 것이 6首나 된다. 이것으로 볼 때 時調의 形式은 一定不變의 定型詩라고 하지만 字數律에서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운 伸縮과 含蓄性을 가지고 있어 創作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字數律로 보면 3·4調의 字數律을 가진 詩形인 것이다. 즉 3·4調 안팎을 基準으로 하여 한 두 字의 伸縮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終章 첫 句 3字로 固定시키는 制約이 가해지는 規定 이외에는 별 까다로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때그때 이미지에 의하여 그 사람 그 사람의 詩想과 言語習慣에 따라서 字數는 2~6字까지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표 4〉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時調는 字數의 제한을 받으면서도 그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詩想

13) 柳聖圭, 상계서; p.233.

李秉岐, 時調의 概說과 創作에서 3章8句

趙潤濟, 國文學 概論에서 3章12句

李泰極, 時調 概論에서 3章6句로 分類함.

을 표현할 수 있는 짧은 形式이기 때문에 읽기 쉽고 기억하기도 쉬우며 이해하기도 便하다. 짓기도 쉽다고 불런지 모르나, 쉽다고 보면 쉽고 어렵다고 보면 어려운 것이다. 形式이 간단하니까 초보자에게는 쉬울 듯이 보이나 그 간단한 속에다가 가장 많은 생각과 사연을 담으려면 여간 힘드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다가 3章 12句라는 制限이 있고, 또 한 句 한 句의 字數의 배합이 있는 까닭으로 까다로운 듯이 여겨진다. 여기에 우리 時調의 아름다움이 있다. 할 것이다.

#### 다) 時調의 內容

文學은 人間의 生活과 感情을 反映한다. 人間의 生活은 時代의 變遷에 따라서 점차로 바뀌어지며 人間의 思考와 智慧와 생활은 서로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우리는 古時調에 담겨진 內容을 살펴 봄으로써 그 時代의 歷史的 背景, 그 時代의 生活相, 價值觀·社會相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古時調에서 先人들이 지녔던 지혜의 샘을 찾을 수 있으며 그들의 思想과 感情을 알 수도 있다. 先人들이 남긴 素朴하고 眞率했던 感情은 時調라는 定型에서 숨쉬고 있다.<sup>14)</sup>

時調의 內容을 더듬는데 여러 가지 方法이 있겠지만 우선 「古今歌曲」에서는 短時調 246首의 內容을 「人倫, 勸戒, 頌祝, 戀君, 慨世, 寓風, 壞古, 歎古, 節序, 尋訪, 閑適, 讌飲, 醉興, 感物, 艷情, 閨怨, 離別, 別恨」 등 19項目으로 分類하였다.

六堂 崔南善은 그의 「時調類聚」에서 古時調 1405首를

「時節, 花木, 禽虫, 老少, 男女, 離別, 相思, 遊覽, 壞古, 豪氣, 君臣, 頌祝, 孝道, 修養, 哀傷, 寄托, 閑情, 醉樂, 寺觀, 人物, 雜類」 등 21個項目으로 分類하였으며,

秦東赫님은 그의 「古時調 文學論」에서 「愛情, 醉樂, 閑情, 自然, 道德, 壞古, 遊興, 忠君, 嘆老, 漁夫, 脫俗, 安貧, 修養, 勸農, 頌祝, 諷刺」 등으로 分類하였다.

上記한 바와 같이 時調의 內容은 多樣하여 그 分類가 많으나 本稿에서는 中學校

14) 秦東赫, 전게서, p.25.

國語 教科書 古時調 25 首를 크게 忠君, 自然, 離別, 人倫, 頌祝 五個項으로 分類하였는데<sup>15)</sup>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中學校 教科書 作品의 內容

學年 \ 內容	忠君	自然	離別	人倫	頌祝
1 學年	3	1	1	2	
2 學年	3	2	3	1	
3 學年	4	3	1		1
計	10	6	5	3	1

〈표 5〉에서 ‘自然’의 內容을 제외한 忠君, 離別, 人倫, 頌祝은 크게 ‘忠孝’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中學校 教科書에 실려 있는 古時調 75% 이상이 儒教思想에 바탕을 둔 忠孝를 내용으로 한 作品들이다.

忠·孝는 우리 東洋人들의 根本德目이며 그것은 우리들의 最高目標이며 萬行의 根本이 된다고 옛부터 일러 왔고 實踐하도록 主張하여 왔다. 그러므로 忠誠心과 孝

- 15) ① 忠君: 임금을 그리워하는 情이 담겨 있는 時調로 임금은 곧 나라를 뜻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自身의 곧은 志操와 節概 및 깊은 義理를 드러내어 임금이나 王朝를 위한 一片丹心을 읊었거나, 임금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임금을 우러러보고 염려하는 심정을 內容으로 한 時調들을 이 속에 포함시켰다.
- ② 自然: 自然 속에 묻혀 유유자적한 生活을 하면서 自然의 아름다움과 삶의 흥취를 읊은 時調를 말한다. 조선時代의 文人 歌客들은 官界에서 더럽혀진 마음을 自然의 맑은 기운으로 씻어버리고 自然 속에서 安心立命을 얻으려 했으며 꽃피는 아침이나 달뜨는 저녁이면 吟風弄月하기를 즐겼다. 尹善道의 五友歌도 여기에 속한다.
- ③ 離別: 離別의 쓰라림과 孤獨의 哀傷을 노래한 것으로 離別을 싫어하고 離別이 없기를 바라는 人間의 情이 나타난 時調를 말한다. 임금과 신하, 형제와 친구 또는 사랑하는 男女들이 헤어지기 싫어하는 內容의 時調로서 우리는 우리 겨레가 離別하는 마당에서 어떠한 느낌과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鑑賞 吟味할 수 있다.
- ④ 人倫: 教訓的인 意味를 쓴 時調로 子孫이나 百姓들을 教化하고 訓育할 目的으로 지은 것을 말한다. 父母에 대한 孝道, 兄弟間의 사랑, 百姓들의 근면성과 協同精神을 일깨워 주기 위한 內容들이다.
- ⑤ 頌祝: 慶事스러운 일을 當했을 때 그것을 稱頌하여 축원하는 뜻을 나타내거나, 경사스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염원하는 뜻을 나타낸 時調를 말한다.

道心이 나타난 것이 教科書에 많이 실려 있음은 당연한 일이라 여겨진다.

라) 作者와 年代

時調가 우리의 古代詩歌中 가장 두드러진 存在임은 자타가 共認하는 바이다. 그 形式이 定型이면서도 우리의 言語性과 生活呼吸이 잘 맞는 데다가 每句가 한두 字씩 자유롭게 增減할 수 있어서 과거는 물론이요 현재에도 살고 있는 것이다. 時調의 起源에 대해서는 上古時代의 巫歌, 鄉歌, 民謠 등에서 그 形態가 유래했다는 학설이 있으나 아직 일정한 定說은 없다.<sup>16)</sup>

그러나 朝鮮朝에 와서부터 크게 隆盛했는데 中學校 國語 教科書에 실려 있는 작품들의 時代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年代 區分은 秦東赫의 「古時調文學論」을 따랐으며, 작품의 연대는 作家의 沒年을 기준으로 했으나 生沒年代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主觀에 따라 정했다.

〈표 6〉 中學校 教科書 古時調 作品의 年代

時代 學年	제 1 기 (~고려말)	제 2 기 (태조~ 예종)	제 3 기 (성종~ 명종)	제 4 기 (선조~ 현종)	제 5 기 (숙종~ 정조)	제 6 기 (순조~ 고종)	작품연대 미 상
1 學年		2		2	1	1	1
2 學年	1	2		3	2		1
3 學年		1	1	3	1		3
計	1	5	1	8	4	1	5

〈표 6〉에서 보면 제 2 기의 作品(端宗폐위) 5 首, 時調의 융성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 제 4,5 기(선조~정조) 時代의 作品이 12 首로 가장 많다. 또한 作者 미상인 作品도 대부분이 宣祖~正祖 사이에 發生되고 유행되었던 것<sup>17)</sup>으로 보아 이 時期의 作品이 顯著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古時調 作家는 王에서부터 學者는 물론이요 庶民·妓女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16) 李泰極, p.57.

17) 柳聖圭, 전제서, pp.255 ~ 263.

하여 누구나 친근히 할 수 있는 대중성을 지니고 있다.<sup>18)</sup>

時調가 널리 지어지고 불리워진 큰 이유의 하나가 이와같이 온 國民의 愛好詩歌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中學校 國語教科書에 收錄돼 있는 作家를 보면 王君(宣祖)의 作品 1首, 將軍(金宗瑞, 南怡)의 作品 2首, 學者 또는 政治家(成三問·朴彭年·金絳·許樞·李穡·李鼎輔·曹植·金宏弼·王邦衍·尹善道·朴仁老·鄭澈)의 作品 12首, 平民歌客(安玟英·金天澤·金振泰·金壽長)의 作品 4首, 妓女(紅娘)의 作品 1首 등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 中學校 教科書 古時調 作家

作 家	王	兩 班	平 民	妓 生	無 名 氏	計
作 品 數	1	14	4	1	5	25

〈표 7〉에서 無名씨의 작품을 모두 平民歌客의 작품으로 본다면 貴族(王, 兩班) 作品 15首. 平民(平民, 妓生, 無名氏) 作品 10首로 貴族作品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有名氏의 作品이 20首, 無名氏의 作品이 5首로 되어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時調는 온 國民이 愛好한 詩歌였기 때문에 時調가 널리 지어지고 불리워진 것이다. 어떤 詩歌이건 간에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 國民全體의 품에서 살 때 그 文學의 生命은 維持될 수 있는 법이다.

## 2. 古時調 教授 및 學習 實態

### 가) 古時調 教育의 一般的 傾向

지금까지 中學校 教育課程에는 文學 장르에 관한 領域이 독서에 포함되어 表面化되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 개편되는 教科書에는 文學 장르별로 單元을 設定하여 그 目標와 內容을 뚜렷하게 提示하는 방향으로 改編되고 있으며<sup>19)</sup> 또한 文學 장

18) 李相寶, 名時調 鑑賞(乙酉文化社, 1971), p. 4.

19) 문교부, 중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한국원호복지공단, 1982), pp. 50 ~ 53.

르를 系列化함으로써 古時調教育이 合理的으로 指導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文學 教育課程이 系列化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금방 古時調 教育이 성공할 수는 없다. 즉 이러한 教育課程과 一線 教育 現場과의 사이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過程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教育現場에서 古時調 指導方法은 한 편의 古時調 作品에 대하여 時調의 形式, 語句의 解釋, 諺말, 比喻 등을 劃一的으로 指導하는 傾向을 띠고 있어<sup>20)</sup>, 古時調의 多樣한 鑑賞과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古時調는 多樣하고 個別的이고 個性的이며 때에 따라서는 특이한 것도 있다. 作者에 따라 表現된 感情도 가지가지다. 그러므로 이와같이 多樣한 古時調를 劃一的으로 教育한다는 것은 入試中心에서 오는 모순임으로 과감히 시정할 문제라 생각한다. 올바른 古時調 鑑賞 態度나 이해를 떠나 時調의 形式, 諺말의 뜻, 語句 解釋 등만을 劃一的으로 學習하다가 작품 全體가 지닌 主題나 그 작품만이 갖고 있는 個性的인 特徵을 教育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教育의 現場에서 자주 보고 있다.

그러면 바람직한 古時調 指導方法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多角度로 檢討되고 論證해야 할 일이나 이에 대한 普遍的 方法은 古時調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古時調에 대한 抵抗感을 解消, 親近感을 갖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차츰 古時調를 多樣하게 鑑賞 이해하며 그 時調만이 가지고 있는 獨特한 個性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생들에게 詩心을 고취시킬 때, 古時調에 대한 興味가 誘發되고 古時調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時調를 짓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길 것이다. 그리고 時調에 대한 親近感이 생겨 興味를 갖고 읽게 됨에 따라 情緒 安定을 기하고 건전한 精神衛生을 조성할 수 있으며 詩的 美化를 시켜 줄 것이다. 학생들에게 이 情緒的인 측면인 詩的 美化를 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情緒的 발달에 적응되는 古時調 指導 課程을 構案하여 指導하여야만 이 그 可能性을 展望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sup>21)</sup> 경우도 있다.

20) 朴東舜, 國語教育의 革命(배제출판사, 1976), p.37 ~ 38.

21) 金海星, 韓國詩論(진명문화사, 1975), p.22 ~ 23.

情緒的 발달에 적응시킨 教育 課程으로 國語科에서는 古時調 指導의 구실도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古時調 指導는 學生 個個人的 상상력과 詩心을 高揚시켜 준다<sup>22)</sup>고 볼 수 있다.

나) 教育 實態

教師들은 古時調 教育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實際 가르치는 過程에서 소홀히 하고 있음이 質問紙에 나타나 있다.

濟州道內 中學校 國語 教師를 대상으로 古時調 教育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質問紙를 배부하고 그 결과를 알아보았다.

〈 표 8 〉 質問紙 配付數 및 回收數

對 象 \ 區 分	發 送 數	回 收 數	回 收 率
國語教師	120 <sup>23)</sup>	106	88.3

1. 教育과정상 고시조의 학년별 지도 목표를

- ① 안다 (9%)
- ② 조금 안다 (34%)
- ③ 모른다 (57%)

2. 고시조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할 것은?

- ① 소재나 주제 (24%)
- ② 형식이나 리듬 (16%)
- ③ 낱말이나 시어 (12%)
- ④ 시대배경 창작 동기 (13%)
- ⑤ 감상 음미 (35%)

22) 朴東舜, 진계서, p.38.

23) 教育 統計上 質問紙는 최소한 인원이 200 명이 되어야 하나 濟州道 지역의 경우 84년 3월 현재 國語科 담당교사가 中學校 106名, 高等學校 81名이므로 질문지 수를 120名으로 잡아 中高教師에게 質問紙를 배부하여 통계를 잡았다.



3. 고시조 지도시 참고할 서적은?
- ①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만으로 지도한다. (11%)
  - ② 학습 참고서를 위주로 지도한다. (59%)
  - ③ 전문 서적을 참고하여 교사가 임의적으로 지도한다. (30%)
4. 고시조의 지도 과정을 작성 활용할 필요가 있는가?
- ① 고시조는 다른 교재와 그 유형이 다르므로 지도 모형이 필요하다. (43%)
  - ② 타교재의 지도 모형에 준하여 지도하면 되므로 필요하지 않다. (23%)
  - ③ 교재의 형편에 따라 교사가 임의적으로 지도하면 충분하다. (34%)
5. 고시조 지도에 있어 애로가 있다면?
- ① 교사 자신의 이론이 빈약해서 (41%)
  - ② 교육 과정상 학년별 지도 목표를 몰라서 (54%)
  - ③ 참고 자료가 부족해서 (5%)
6. 고시조의 지도는?
- ① 교과서 작품만을 철저히 지도하면 충분하다. (18%)
  - ② 교과서 작품과 관련된 교과서 이외의 작품(연관작품)을 함께 지도한다. (20%)
  - ③ 교과서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관 작품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 (62%)
7. 학생들에게 고시조 감상 지도는?
- ① 학습시마다 꼭 감상을 시킨다. (11%)
  - ② 가끔 감상 교육을 실시한다. (68%)
  - ③ 학생들이 싫어하여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21%)
8. 교과서 고시조와 관련된 연관 작품 지도의 필요성은?
- ① 절실히 느낀다. (75%)
  - ② 그저 그렇다. (21%)
  - ③ 없다. (4%)
9. 교과서 고시조와 관련된 연관 작품 지도 경험은?
- ① 거의 없다. (19%)
  - ② 가끔 지도한다. (77%)
  - ③ 계속해서 지도하는 편이다. (4%)
10. 연관 작품을 투입하여 수업하지 못하는 이유는?
- ① 연관 작품 선정이 어려워서 (17%)
  - ② 필요성은 느끼지만 시간이 없어서 (77%)
  - ③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6%)

11. 교과서 작품과 함께 연관 작품을 하나 지도하고자 한다. 다음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 ① 교과서 작품의 지은이가 쓴 작품중에서 (48%)
  - ② 교과서 작품과 주제가 비슷한 다른 작가의 고시조 중에서 (44%)
  - ③ 교과서 작품의 내용과 비슷한 현대 시조중에서 (8%)
12. 고시조 지도에 있어 연관 작품을 투입해서 수업한다면 학습 효과가
- ① 크다고 생각된다. (88%)
  - ② 보통이라고 생각된다. (10%)
  - ③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된다. (2%)
13. 연관 작품을 투입해서 수업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는?
- ①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8%)
  - ② 연관 작품 선정이 어려워서 (38%)
  - ③ 지도 시간이 부족해서 (54%)
14. 연관 작품을 투입하여 수업한다면 학생들은?
- ① 고시조를 다양하게 이해할 것이다. (52%)
  - ② 고시조에 대한 친근감이 길러질 것이다. (46%)
  - ③ 고시조 학습의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다. (2%)
15. 교과서 고시조 작품을 암송하는 학생은?
- ① 거의 모든 학생이 된다. (22%)
  - ② 반정도 학생이 된다. (72%)
  - ③ 거의 외지 않는다. (6%)
16. 시조 짓기를 가정 숙제로 낼 때는?
- ① 짓는 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준다. (16%)
  - ② 가정에서 해 오라고만 한다. (36%)
  - ③ 주제나 제목만을 말하고 지어오도록 한다. (48%)
17. 시조 짓기를 과제로 낸 후 검사는?
- ① 시간이 없어 현장에서 날인만 해준다. (52%)
  - ② 특정 학생의 작품만 검토해 준다. (24%)
  - ③ 모든 학생의 작품을 검토해 준다. (6%)
  - ④ 시간이 없어 검사를 못하고 있다. (18%)
18. 짓기 작품을 검토해 주지 않는 이유는?
- ① 시간이 없어서 (92%)
  - ② 지금까지 검토해 주지 않았기 때문 (8%)

19. 고시조 계승 교육에 관한 나의 의견은?

- ① 관심있는 몇몇 사람만 하면 충분하다. (20%)
- ②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80%)
- ③ 옛날 것으로 교육할 가치가 없다. (0%)

20. 교과서 편재상 고시조 단원 구성 비율은?

- 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72%)
- ②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한다. (16%)
- ③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한다. (12%)

21. 교과서에 실려있는 고시조의 내용은?

- ① 골고루 다양하게 실려 있다. (54%)
- ② 비슷한 것이 많아 한 쪽에 치우친 감이 있다. (34%)
- ③ 잘 모르겠다. (12%)

위의 質問紙에 나타난 結果를 要約하면

- ① 古時調 教育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指導할 사항은 鑑賞, 主題, 時代背景을 들고 있다.
- ② 教師 자신의 理論 貧弱 指導觀 미흡으로 古時調를 參考書 위주로 지도하는 경향이다.
- ③ 教科書 作品의 理解를 돕기 위해서는 教科書 作品과 關聯된 聯關作品 指導가 必要하나 時間이 부족해서 實施하지 못하고 있다.
- ④ 鑑賞教育의 重要性은 인식하면서도 現場 教育에서 鑑賞教育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 ⑤ 古時調의 繼承 教育의 必要性을 느끼고 있으며, 時調의 創作 教育도 教師가 關心을 갖고 指導할 必要性을 느낀다.
- ⑥ 教科書 편재상 古時調 單元 構成이 적절하고 內容도 학생들 수준에 적합하다는 반응이었다.

다) 學習實態

國語科 學習 指導 目標 實現을 하기 위한 先行 作業의 하나가 學生의 學習實態를 把握하는 일이다.<sup>24)</sup>

24) 金敏洙外, 國語教育論(一潮閣, 1982), p.277.

다시 말하면 학생의 學習 實態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數値가 곧 該當單元에 대한 學習指導의 方向과 性格을 規定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質問紙를 통하여 學生들의 古時調 學習實態를 알아 보았다.

〈표 9〉 質問紙 配付數 및 回收數

대 상 \ 구 분	發 送 數	回 收 數	回 收 率
중 학교 3 학년	120 <sup>25)</sup>	109	90.8

1. 시분야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 ① 현대시 (32 %)
  - ② 현대 시조 (28 %)
  - ③ 고시조 (24 %)
  - ④ 향가, 고려 가요 (16 %)
2. 나는 교과서 고시조 작품을?
  - ① 흥미있게 읽는다. (24 %)
  - ② 흥미있지만 읽을 기회가 적다. (44 %)
  - ③ 흥미가 없어 읽기조차 싫다. (32 %)
3. 교과서 이외의 고시조 작품을 대했을 때는?
  - ① 읽고 싶고 그 내용도 알고 싶다. (18 %)
  - ② 경우에 따라 읽고 싶을 때가 있다. (45 %)
  - ③ 전혀 읽고 싶지 않다. (28 %)
4. 고시조 학습을 좋아하는 이유?
  - ① 내용이 짧으니까 (52 %)
  - ② 시어가 아름답고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30 %)
  - ③ 흥미가 있어서 (18 %)
5. 고시조를 싫어하는 이유는?
  - ① 형식이 일정해서 (40 %)
  - ② 옛말이 많아서 (22 %)
  - ③ 내용이 까다로워서 (38 %)

25) 教師의 質問紙 數와 統一을 기하기 위해 학생의 質問紙數도 120 名을 잡았다.

6. 고시조 학습에 대한 나의 생각은?
- ① 재미있는 공부다. (38%)
  - ② 그저 그렇다. (54%)
  - ③ 재미 없다. (8%)
7. 고시조 작품을 읽을 때는?
- ① 주제 내용 등을 꼭 생각하며 읽는다. (32%)
  - ② 가끔 내용을 생각하며 읽는다. (48%)
  - ③ 아무 생각없이 그냥 읽는다. (20%)
8. 고시조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 ① 내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 (18%)
  - ②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셔야 한다. (20%)
  - ③ 집에서 공부해 와서 선생님의 지도와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62%)
9. 선생님이 고시조를 지도하시는 것에 대한 나의 요구는?
- ① 교과서에 있는 고시조만 지도해 주면 충분하다. (22%)
  - ② 교과서와 관련된 교과서 이외의 다른 고시조를 함께 지도해 주었으면 한다. (52%)
  - ③ 선생님께서 임의적으로 지도하시면 된다. (26%)
10. 내가 암송할 수 있는 고시조는 몇 편 정도 될까?
- ① 1~4 편 정도 (8%)
  - ② 5~10 편 정도 (32%)
  - ③ 10~20 편 정도 (58%)
  - ④ 20 편 이상 (2%)
11. 내가 가지고 있는 시조에 관한 참고 서적은?
- ① 없다 (72%)
  - ② 1권 있다 (26%)
  - ③ 2~4권 있다 (2%)
12. 교과서에 실려있는 고시조를 배울 때,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는 고시조를 교과서 고시조와 함께 비교하면서 지도한다면 교과서의 고시조가
- ① 더 쉽고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70%)
  - ② 전과 비슷할 것이다. (22%)
  - ③ 전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8%)
13. 교과서 고시조와 함께 공부할 시조를 하나 선택하고자 한다. 다음 중 어느 것을?
- ① 교과서 작품의 지은이가 쓴 것 중에서 (36%)
  - ② 다른 작자가 쓴 고시조 중에서 교과서 작품과 내용이 비슷한 것 중에서 (42%)
  - ③ 교과서 고시조와 비슷한 내용의 현대 시조 중에서 (22%)

14. (13) 번에서 왜 그것을 선택하였나?
- ① 선택할 것이 없기 때문에 (4%)
  - ② 교과서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74%)
  - ③ 내가 흥미 있는 것이어서 (22%)
15. 교과서 이외의 다른 고시조를 교과서 작품과 함께 공부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는?
- ① 입학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56%)
  - ② 학력 향상에 별 도움이 없다. (38%)
  - ③ 학습할 가치가 없다 (6%)
16. 교과서 이외의 작품을 교과서 작품과 비교하면서 공부한다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 ① 고시조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4%)
  - ② 고시조 공부에 대한 흥미가 생길 것이다. (36%)
  - ③ 여가를 선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
17. 나는 고시조를 감상하는 것을?
- ① 좋아한다. (8%)
  - ② 보통이다. (48%)
  - ③ 싫어한다. (44%)
18. 고시조를 공부하는데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 ① 소재나 주제 (12%)
  - ② 형식, 종류 (8%)
  - ③ 낱말, 시어 (22%)
  - ④ 고사, 시대 배경 (20%)
  - ⑤ 감상, 음미 (38%)
19. 어떤 내용의 고시조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흥미있나?
- ① 나라 사랑 (10%)
  - ② 부모에 효도, 친구간의 우애 (16%)
  - ③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 (32%)
  - ④ 우리의 미풍양속 (18%)
  - ⑤ 농촌 생활의 모습이 잘 나타난 내용 (24%)
20. 시조 짓기를 해 본 경험은?
- ① 시간 나는 대로 자주 쓴다. (8%)
  - ② 학교에서 과제가 있을 때만 한다. (86%)
  - ③ 써 본 적이 거의 없다. (6%)

21. 시조 짓기를 숙제로 내면?

- ① 해 온다. (42%)
- ② 해 오지 않을 때가 많다. (28%)
- ③ 경우에 따라 해 오기도 하고, 아니 해 오기도 해서 반반 정도다.(30%)

22. 시조 짓기 숙제를 할 때는?

- ① 참고서를 보고 해 온다. (45%)
- ② 교과서나 기타 책의 작품을 모방해서 해 온다. (14%)
- ③ 창의적으로 해 온다. (29%)
- ④ 남이 해 온 것을 보고 한다. (12%)

위의 質問紙에 나타난 學習 實態를 요약하면

- ① 學生들은 古時調보다 現代時調나 現代詩를 좋아하는 경향으로 古時調 學習에 흥미를 잃고 있다.
- ② 古時調를 興味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古時調에 대한 基礎實力 부족 및 참고서 적 미흡으로 공부할 기회가 적다.
- ③ 古時調 學習은 학생 스스로 공부한 후 선생님의 指導를 받고 확실히 그 內容을 이해하고 싶어한다.
- ④ 古時調 指導는 教科書에 收錄돼 있는 것 이외의 聯關作品까지 확충해서 지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 ⑤ 聯關作品을 指導해 준다면 古時調에 대한 興味가 誘發되고 教科書 作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클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 ⑥ 古時調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古時調 鑑賞學習을 기피하고 있으며, 입학 시험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공부하지 아니 하려는 경향이다.
- ⑦ 時調 짓기는 學校에서 과제가 있을 때에만 피동적으로 하는 경향이므로, 교사는 時調 創作教育에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겠다.

### 3. 指導의 實際

가) 時調文學의 一般的 指導 傾向

中學校 國語科 教育課程의 一般目標 '(라)'항에 보면 국어로 표현된 우리 문화를

사랑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넓게 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데 있다.<sup>26)</sup>라고 되어 있어 古時調 學習에 있어서 단순한 지식보다 文化 사랑, 民族文化 發展이라는 큰 안목에서 教育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入試 위주의 教育으로 말미암아 古時調를 지나치게 分析하고 評價한 나머지 본연의 作品的 事實 이상으로 指導하여 오히려 誤導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參考書의 公害는 學生들의 古時調 學習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現實이다. 게다가 參考書마다 作品的 年代, 背景 表記 등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입장이어서 古時調 學習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올바른 古時調 教育은 학생들에게 民族 主體性을 확립시켜 주는 것이 되며, 價値觀 形成의 지름길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 韓國 國民으로서의 國民精神 培養이나 民族魂과 民族精神의 涵養이며, 높고 깊은 德性和 人格의 陶冶 등은 先人들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올바르게 形成될 수 있기 때문이다. 中學生들에게 올바른 價値觀 形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古時調 教育에 있다고 여겨진다.

時調는 45字 內外의 字數를 가지고 作者의 心境을 털어놓은 작품이므로 訓話的 註釋이나 語法의 考究만으로 작품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sup>27)</sup> 물론 訓話 註釋을 무시함으로써 詞意가 왜곡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그러면 우리 民族詩라고 할 수 있는 古時調를 어떻게 教育하고 음미하게 하여 바람직한 自我를 형성하고 올바른 價値觀을 가지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教師에 따라, 그 指導方法이 다를 수 있겠지만 時調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方向에 따라 指導함이 가장 적절한 方法<sup>28)</sup>이라고 믿는다.

① 時調學習의 基礎가 되는 時調의 名稱, 發生過程, 形式, 種類에 대한 指導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時調의 形式은 時調가 發生한 이래 오늘날 까지 어떤 변혁이나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29)</sup>

26) 문교부, 중학국어 교사용 지도서 3 (한국능력개발사, 1982), p.3.

27) 李泰極, 전개서, pp.55 ~ 57.

28) 徐仲寬, 鄭澈의 訓民歌 指導論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p.96.

29) 兩章時調, 單章時調 등을 李殷相 선생이 시도했으나 요즘에는 이런 詩形으로 짓는 이가 거의 없고, 이는 단순한 시도에 그친 것으로 봄이 옳다.



② 古時調 속에는 故事나 人名·地名 등이 인용이 많다. 이런 경우에 出典이나 典籍을 외면하게 되면 解釋上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럴테면 鄭圃隱의 「이몸이 죽어죽어」로 된 丹心歌도 李芳遠의 招宴에서 「이런 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라는 何如歌에 應答한 노래라는 背景事實을 알고서야 정당하게 해석되고 감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전연 관련짓지 않고 생각한다면 丹心歌는 피끓는 젊은이들이 사랑의 하소연이라고도 여겨질 것이다. 또한 曹植의 「두류산 양단수를」이라는 時調도 陶潛의 「桃花源記」를 알고서야 가능한 일이다.

③ 그 時代의 情勢가 작품의 主題나 題材가 되므로 그 時代的 狀況이나 作者의 社會的 背景과 人生觀을 먼저 살펴본 후 作品 指導에 들어가야 한다. 만일 時代的 社會的 또는 作者의 思想的 背景을 무시한 채 作品指導를 한다면 이는 수박 겉핥기식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成三問의 「首陽山 바라보며」라는 時調 한 首를 바르게 해석하려면 「首陽山, 夷齊. 採薇」 등의 뜻이 갖는 時代的 狀況을 알아야 하겠고, 때문에 이 時調는 端宗 復位로 에워싸인 당시의 歷史的 狀況을 알아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④ 時調에 대한 指導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상하는 태도를 기르는 일이다. 곧 文句의 解釋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文學的 生命을 享受하고 이해하자는 것이다.

어떤 文學 作品이든지 解釋을 통해 그 形式과 素材 등을 探究 음미하는 方法도 作品 鑑賞의 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감상은 감상자가 作家의 心境으로 옮겨져서 作家가 表現한 美의 世界에 들어가 그 美的 價値를 발견하기도 하며 때로는 관조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작품에 나타난 事象에 자극을 받아 스스로 타오르는 일종의 創作을 하는 길이 되기도 하고 모르는 자기를 새삼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⑤ 時調도 詩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感動의 世界를 표현한 韻文文學이다. 읽고 나서 곧 공감하는 소박하고 단순한 것도 많으나, 여러번 읽고 생각할수록 그 眞價를 알게 되는 수도 적지 않다. 그러니 時調를 단순한 字句 해석에만 일관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작품을 綜合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와 같이 時調敎育은 理解・鑑賞・評價에까지 광범위하게 지도되어야 한다.

⑥ 時調는 定型詩인 만큼 形式을 살펴보고 그 時調의 構想이나 着想이 어떠한가, 章과 句의 構成과 內容과의 聯關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時調는 初・中・終章이 각각 獨立된 思想과 意義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初章은 中章으로 連結되고, 中章은 終章에 聯關지어지면서 3章이 相互間에 有機的 關係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詩와 時調의 特性, 그리고 定型詩 구성이 갖는 平易性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함이 古時調 敎育의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時調指導는 쉬운 일이 아니다. 남의 지은 詩만을 읽어보고 그 作者의 마음을 알아낸다는 것은 슬래잡기 같은 느낌이 없지도 않으나 作品을 대하는 충실성과 誠實性은 물론이지만 그 작품이 이루어진 背景과 作者 자신의 生活도 알고 난 후 작품을 대한다면 훨씬 그 작품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 나) 1學年 古時調 指導

##### ① 指導方向

1學年은 古時調를 통해 民族 固有의 情緒를 이해하고 民族魂을 발견하여 民族精神에 입각한 自我가 형성되도록 지도한다.<sup>30)</sup>

1學年 敎科書에는 7편의 古時調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平民에서 임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作者層을 보이는 한편 忠・孝・友愛・自然 등 다양한 題材를 가지므로 民族情緒의 면모를 多角的으로 살필 수 있다. 따라서 傳統있는 敎育을 지향하는 오늘에 있어 古時調 敎育은 필수적이다.

고려 말에 形式의 完成을 보여 朝鮮을 거쳐 오늘날까지 커다란 변모없이 종적으로 이어지는 時調文學은 우리 文學에서 커다란 비중을 가진다. 그러므로 1學年의 古時調 敎育은 時調 자체의 鑑賞에서 더 나아가 古典文學에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方向에의 入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敎科書에 실린 古時調를 理解하고 鑑賞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이나 지식을 지나치게 많이 가르치지

30) 문교부, 중학국어 교사용 지도서 1 (한국교육개발원, 1982), p.197.

않도록 한다.

② 學習目標<sup>31)</sup>

- 가) 古時調를 바르게 朗讀할 수 있다.
- 나) 古時調의 韻律을 밝혀 낼 수 있다.
- 다) 時調의 形式을 理解하고 鑑賞할 수 있다.
- 라) 時調의 素材와 主題를 파악할 수 있다.
- 마) 우리 古典을 사랑하고 꾸준히 읽는 태도를 기른다.

③ 作品 指導의 實際

- ㉞ 오면 가려하고 가면 아니 오네  
오노라 가노라 하니 불 날이 전혀 없네  
오늘도 가노라 하니 그를 싫어하노라.

宣祖大王(1552 ~ 1608)은 조선 제 14대 임금이다.

專制君主體制에 있어서 君王의 地位는 絕對的인 것이었다. 朝鮮 時代에 있어서 時調는 君王에서부터 妓女들까지 社會 모든 階級의 작품들이 있었다. 君王들은 一般 사람들과는 달리 밀폐된 宮中生活을 하였으므로 生活 感情面에서 완전히 城壁的인 울타리로 一定지워졌었기 때문에 時調를 즐기고 짓는 作家의 수는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몇몇 君王들의 작품이 전하고 있으니 이들 君王들의 時調야말로 매우 귀중한 존재이며, 만약 이들의 작품이 없었던들 時調를 가리켜 온 國民을 망라한 文學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君王으로서 가장 많은 時調를 남긴 분은 孝宗(17代)이었는데 그의 時調 6首가 전하고 있으며, 이외 成宗, 端宗, 宣祖 등의 작품도 1首씩 전하고 있다.

교과서 작품과 유사한 작품으로는 成宗이 함천 군수로 있던 兪好仁이 老母의 봉양을 위하여 사직함에 그의 離別을 만류하는 간절한 內容의 時調가 있다. 兪好仁은 비록 벼슬이 낮았으나 成宗의 특별한 恩寵을 받았던 것을 다음 時調를 통하여 알 수 있다.

---

31) 學習目標 설정은 중학교어 교사용 지도서(한국교육개발원, 1983년) 및 중학교어 학습 지도안(유아출판사, 1983)에서 참고하여 설정하였음.

이시럼 부디 갈다 아니 가든 못할소나  
 무단히 네 숨드냐 남의 말을 들었느냐  
 그러도 하 애도래라 가는 뜻을 일러라  
 (靑丘永言)

教科書에 收錄되어 있는 時調는 盧禎이 막 한강을 건너자 宣祖가 보낸 內侍(宦官)가 쫓아와 이 時調를 전했다<sup>32)</sup>고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宣祖의 애달픈 마음이 이 時調에 담기어 있다. 그러면 宣祖는 유독 盧禎만을 그렇게 아끼었던가? 盧禎을 아끼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時調에 담기어 있는 宣祖의 마음은 오래 쌓여 온 외롭고 아쉬운 마음이 나타남으로 이것이 盧禎의 떠남이 계기가 되어 마침내 밖으로 터져 나와 표현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作品 內容을 보면 이와같은 사실이 잘 표현되어 있다. 初章과 中章에서 보면 온 사람은 오래 머무르지 않고 가버리고, 간 사람은 다시 오지 않아 사람들과 오래 사귄 수 없다는 것을 말했다. 終章은 이제까지 지은이가 늘 겪어 왔던 사실이 오늘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初·中章은 과거의 사실을 말한 것이고 終章은 현재의 사실을 말한 것이다.

韻律에 있어서는 初章에서 ‘오면’ 과 ‘가면’은 意味上的 對照를 이루면서 어미 ‘-면’이 반복되고 있다. 中章의 ‘오노라’ ‘가노라’도 의미상의 對照와 어미의 반복을 이룬다. 또 中章의 ‘가노라 하니’는 終章에 反復되고 있다.

㊤ 겨울날 다스한 별을 님 계신 데 비취고자.  
 봄 미나리 살진 맛을 님에게 드리고자  
 님이야 무엇이 없으리마는 내 못잊어 하노라

이 時調는 作者와 年代가 미상인 작품으로 임을 잊을 수 없어, 그가 늘 편히 즐겁게 지내기를 바라는 內容의 時調다.

英祖 前後한 時代는 平民文學이 많이 나타난 時代인데 특히 無名氏 作品이라는 것은 小說이고 詩歌이고 간에 平民의 작품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서술 內容이

32) 문교부, 상계서, p.197.

平民의 生活을 赤裸裸하게 그렸고 內容이 素朴하고 眞率한 生活表現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님’이란 임금을 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 이만한 愛情이야말로 무한정의 것으로 믿을 수 있다.

初章의 ‘겨울날 다스한 별’은 가난한 백성이 갖는 알뜰한 戀君의 情이고 中章의 ‘봄 미나리’도 역시 농사짓는 착한 百姓들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情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말이다.

겨울날 다스한 별을 꺾거나 봄철의 미나리를 맛보거나 할 때 으레 입을 그리워하는 알뜰한 정성이 잘 나타나 있다.

㊤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꼬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어 있어  
백설이 만견곤할 제 독야청청 하리라.

成三問(1418 ~ 1456)은 死六臣의 한 사람으로 굳은 志操의 선비로서 忠義에 대해서는 唯我獨尊의 氣風을 보였으니<sup>33)</sup> 이 時調는 이러한 그의 氣象을 잘 나타낸 작품이라 하겠다.

歴史的으로 볼 때 世祖의 卽位는 政治的 文化的으로 功績도 인정되나 그 裏面에는 人生의 悲劇도 많았으니 어린 端宗의 無慘한 최후와 死六臣 등의 굶힐 줄 모르는 忠義心은 그들의 時調를 통해서 유감없이 나타나 있다.

그가 지은 節義 時調는 2首가 전하고 있는데 刑場에서 지은 이 時調는 圃隱의 丹心歌와 같은 脈絡이며, 또 다른 한 首는 節介와 志操를 굳게 지킴을 強調하였으니 그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首陽山 바라보며 夷齊를 恨호노라  
주려 죽을진들 採薇도 호는것가  
아모리 프시엿 거신들 귀 뉘 싸희 낫더니  
(瓶窩歌曲集 62)

33) 梁在赫, 死六臣의 時調 文學 研究(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教科書에 실려 있는 時調는 端宗의 復位를 꾀하다가 실패하고 죽음을 당할 때 지은 忠節의 노래로서 萬古不變의 忠誠心을 읊은 것이다.

새 임금(世祖)이 다스리는 政治를 白雪에 비유하여 차디찬 온 天下를 뒤덮어서 萬物을 죽인다 해도 자기만은 죽었다가 還生하여 志操를 지켜 홀로나마 옛 임금(端宗)을 섬기겠다는 意志의 표현이다.<sup>34)</sup>

‘봉래산 제일봉’은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의 道德的 精神的 價値를 말하며 ‘獨也靑靑’ ‘낙락장송’은 그의 信念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지키겠다는 意志의 표현이다.

작가의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 지어 불렀다는 이 時調는 그의 義憤에 찬 부르짖음과 높고 매서운 節介가 칼날처럼 번뜩임을 느낄 수 있다.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찬 한 마디 한 마디는 그대로 成三問의 忠을 기리는 넋이다.

㉞ 가마귀 눈비 맞아 회는 듯 검노매라

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우라

님 향한 一片丹心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朴彭年(1417 ~ 1456)도 死六臣이 한 사람으로 節義와 忠을 위해 죽음도 불사한 깨끗한 선비이다.<sup>35)</sup>

그가 지은 時調는 두 首가 전하는데 그 중 한 首가 受刑時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變節者들을 諷刺하면서 자신의 굳은 節義를 나타낸 時調가 바로 教科書에 실려 있는 時調다.

이 時調는 金磧이 世祖의 명을 받아 朴彭年의 獄中으로 술을 가지고 와서 노래로 넋지시 마음을 떠 보려고 하니 그 和答으로 굽힘 없는 志操를 읊은 것이다.<sup>36)</sup>

이 時調 初章에서 ‘까마귀’는 世祖를 비유한 것이다. 일국의 왕을 까마귀에 견주고 까마귀가 눈비를 맞으면 잠시 회는 듯하지만 검은 까마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빗댄 것이다. 中章은 信念과 意志를 더욱 강조한 것으로 夜光明月은 어린 端宗을

34) 李泰極, 時調의 史的 研究(宣明文化社, 1974), pp.144 ~ 146.

35) 梁在赫, 전계서, p.284.

36) 李能雨, 李朝時調史(以文堂, 1956), p.29.

말하는 것으로 세상은 캄캄한 밤이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빛난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初章과 中章은 終章의 信念과 意志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비유로 자신의 一片丹心을 다짐하고 있다.

文學으로서 볼 때 이 時調의 成功은 최고의 권좌인 왕을 까마귀에 비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에게 큰 저항감을 주지 않는 점이다. 그 까닭은 잘 다듬어진 수사법과 차분하고 유려한 시심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時調의 素材的 핵심은 夜光明月로 은유된 폐위의 端宗이고, 그 主題의 핵심은 忠誠이지마는 감상으로는 그러한 공식적 의미보다도 作者 朴彭年의 곳곳한 기개가 옆으로 스쳐 표현된 은근한 향기를 알아야 하겠다. 丹心歌의 구절을 그대로 終章으로 쓴 것은 作者의 忠節이 鄭夢周의 忠節과 脈絡이 똑 같은 성질의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인 듯하다.

㊸ 세월이 如流하니 백발이 절로 난다.

뽑고 또 뽑아 젊고자 하는 뜻은

北堂에 親在하시니 그를 두려움이라.

金振泰는 英祖時代 사람으로 生沒年代가 未詳이다. 속세에 때 묻지 않은 仙景을 노래한 時調 26首가 전하는데 모두가 平時調이며 內容은 自然, 修養, 孝, 農村 등을 주로 읊었다.<sup>37)</sup>

위 時調는 살아 계신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하여 늙고 싶지 않다는 內容의 時調로 初章은 자신의 나이에 따른 身體的 變化(백발)를 표현한 것이고 中章은 自身의 나이에 관계 없이 젊고자 한다는 자신의 소망을 드러냈다. 終章은 中章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아직도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기 위하여 건강을 유지해야겠다는 뜻이다.

어머니가 거처하는 방(北堂)에 아직도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 어머니가 나의 흰 머리를 보고 언짢아 하시거나 걱정하실 것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흰 머리를 뽑고 또 뽑는 것이다.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걱정을 끼쳐 드릴 것을 염려함이니 이는 어머

37) 서울大學校 東亞文化研究所編 國語國文學事典(新丘文化社, 1974), p.165.

니를 지극한 마음으로 봉양하는 효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있고서야 비로소 어머니를 모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㉔ 同氣로 세 몸 되어 한 몸같이 지내다가  
두 아운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고  
날마다 夕陽 門外에 한숨 겨워 하노라

朴仁老(1561 ~ 1642)는 명종 16년부터 인조 20년까지 사신 분으로 호는 蘆溪다.

松江과 함께 歌辭文學의 大家로서 時調가 60여수, 歌辭 7편이 전하고 있는데, 時調 각 작품에 題名을 붙인 것이 많은 점이 特徵이고, 時調의 主題는 주로 五倫 道德을 읊은 것이 많다.

그의 時調는 道學的인 思想과 自然愛 思想이 짙고 醉興을 읊은 時調는 1首도 없다.<sup>38)</sup> 그러나 中國故事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 점<sup>39)</sup>은 松江과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그리고 松江과 같이 豪放하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規模와 節制로써 一生을 살았고 淸貧과 平범으로써만 의롭게 處世한 模範的인 인물이었다. 그래서 蘆溪의 작품을 過少評價하는 경향이 있으나 가장 충실히 생활한 무신이었기에 그에겐 浪漫도 虛榮도 없었으며, 生活이 그럴진대 時調에 있어서도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教科書에 실려 있는 時調는 집을 나간 두 동생이 돌아오기를 비는 內容으로 初章과 中章은 過去의 일을 終章은 現在의 일을 表現했다.

初章은 3兄弟 사이의 깊고 多情한 關係를 나타냈고 中章은 兄弟들의 別離를 나타냈으며, 終章은 형제들이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지은이의 기대가 함축되어 있다.

한 부모의 피를 받고 태어나서 의종게 지내다가 어지러운 世上의 소용돌이 속에 두 아우와 헤어지고, 그 돌아오지 못할 두 아우를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모습에서 강한 友愛를 느끼게 한다.

38) 秦東赫, 전게서, p.166.

39) 朴晟義, 韓國文學 背景 研究 (宣明文化社, 1974), pp.581 ~ 582.



그의 時調中에서 널리 알려진 時調로는 父母에 대한 孝誠이 잘 나타난 時調로 前  
述한 金振泰의 「세월이 如流하니」와 意味가 통하는 時調다.

그것을 들어 보면

盤中 早江감이 고아도 보인다.  
柚子 안이라도 품엄 죽도 허다마는  
품어가 반기리 업슬시 글로 설워 허느이다.

( 蘆溪集 1 )

早紅柿歌라 이름하는 것으로 지은이가 李德馨을 찾아가매 早紅柿를 대접하므로  
중국의 陸績懷橘의 옛일에 비추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지은 노래다. 지은  
이는 조흥감을 보자 옛날 중국 후한 때 여섯살 난 陸績이 袁術이 준 橘 셋을 그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께 드리려고 가슴에 품었던 일에 생각이 미쳐 늙어가는 그였  
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은 것이다.

㉔ 바람이 눈을 몰아 山窓에 부딪치니  
찬 기운 새어들어 잠든 梅花를 침노한다.  
아무리 얼우려 한들 봄뜻이야 앓을 쏘냐.

安玟英(1816 ~ ?)은 철종 때 사람으로 호는 周翁이다.

고종 13년(1876)에 그의 스승인 朴孝寬과 함께 三大古時調集의 하나인 「歌曲  
源流」를 지었는데 거기에 180首의 時調를 남기고 있어 現傳하는 古時調作家中 가  
장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는 다른 作家들과는 달리 時調를 지을 때마다 그 작품을 짓게 된 動機나 背景  
을 그 작품에 附記하고 있으므로 그의 時調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는  
마치 現代人이 일기를 쓰듯이 그때 그때에 일어난 感情과 생활을 빠짐없이 時調를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時調와 그의 生活과를 가장 밀접하게 연결시킨 사람으로서 時  
調 文學史上 가장 두드러진 분이다.

그의 時調는 꾸밈이 없고 誇張이 없으며 어디까지나 眞率한 품격을 지닌 作家다.

그의 선배이자 스승인 朴孝寬과는 34세나 차이가 지면서도 매우 다정한 관계를 맺었다. 그러다가 한 平生 尊敬하며 스승으로 모셨던 朴孝寬이 他界하자 安玟英은 朴孝寬을 추모하여 時調를 지어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教科書에 실린 時調도 朴孝寬과 함께 늘면서 지은 작품으로 순간적인 감각을 구체적으로 실감있게 묘사한 것이다. 8首로 된 連時調 咏梅歌中 1首로, 梅花를 주된 제재로 삼고 여기에 스승인 朴孝寬의 山房에서 벗과 기생과 더불어 가야금을 뜯고 노래를 하며 놀 때 朴孝寬이 가꾼 梅花가 책상위에 피어 있음을 보고 지은 것<sup>40)</sup>이라고 한다.

바람에 불려 온 눈이 산창에 부딪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은이는 추운 방안에 있는 梅花를 보고 느낀 경의감을 나타낸 서정시로 文學性이 뛰어난 작품이다. 梅花를 아끼고 사랑하는 지은이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그가 지은 咏梅歌中 1首를 더 들면

梅影이 부드친 窓에 玉人金釵 비겨신져  
二三日髮翁은 거문고오 노릿로다.  
이윽고 蠶드러 勤하랄제 달이 또한 오르더라.

( 金王叢部 6 )

이 노래도 朴孝寬 山房에서 벗과 기생과 더불어 가야금을 뜯고 노래를 하며 놀 때 지은 時調로 스승인 朴孝寬이 梅花를 매우 좋아하여 손수 심은 새 순을 책상 위에서 기른 것이 바야흐로 때가 되어서 몇 떨기가 半開하여 暗香이 浮動함에 이 時調를 지었다 한다.<sup>41)</sup>

#### 다) 2學年 古時調 指導

##### ① 指導方向

이미 1學年 때 善祖大王 外 6人의 古時調를 배웠지만 2學年에서 다시 8首의 平時調와 1首의 連時調를 통해 時調의 形式, 主題, 표현 기교 등을 살펴보고 鑑賞하여 古時調 文學의 교양을 더욱 높이는데 있다. 따라서 時調를 통해서 면면히 계

40) 서울大學校 東亞文化研究所編, 전게서, p.394.

41) 秦東赫, 전게서, p.315.

승되어 온 傳統文化를 살펴보도록 하며 時調를 통해 바른 정서를 함양함은 물론 조국 수호 등 현재 시점과의 합치점을 찾도록 指導한다.<sup>42)</sup> 時調를 鑑賞하는 동안 자신이 직접 時調를 짓고자 하는 態度와 意慾도 기르도록 해야한다.

## ② 學習 目標

- ㉠ 時調의 音數律을 밝혀 낼 수 있다.
- ㉡ 音數律에 맞게 時調를 낭독할 수 있다.
- ㉢ 時調의 各行 사이에 關係나 각 연 사이의 關係를 알아낼 수 있다.
- ㉣ 時調의 素材와 主題를 把握할 수 있다.
- ㉤ 時調를 綜合的으로 鑑賞할 수 있다.

## ③ 作品 指導의 實際

- ㉠ 백설이 잦아진 골에 구름이 머물러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夕陽에 호을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李穡(1328 ~ 1396)은 高麗 忠肅王 15년부터 李太祖 5년까지 사신 분으로 號는 牧隱이다. 그는 李成桂의 세력이 커지자 高麗의 王朝를 지키기 위하여 힘쓰다가 流配까지 당했고 후에 李太祖의 부름이 있어 친구의 禮로 만났다고 하며 李太祖의 尊敬을 받은 人物이었다 한다. 그의 時調로는 1首가 전하는데 쓰러져 가는 高麗王朝를 懷古하면서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찾기 위하여 彷徨하는 난처한 心境을 읊었다.<sup>43)</sup>

이 時調는 나라는 망해가고 忠臣은 점점 줄어드는 판국에 새 王朝를 세우고자 하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歷史的인 전환점에 홀로 서서 悲痛한 現實的인 狀況을 개탄하는 슬픈 심회가 가득히 넘치는 憂國詩다.<sup>44)</sup>

이 작품 속에 ‘구름, 매화, 석양’ 등은 상징적인 뜻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뜻이 넓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지은이는 高麗의 忠臣이므로 구름은

42) 문교부, 중학교 국어 교사용 지도서 2 (한국교육 개발원, 1982), p.118.

43) 秦東赫, 전계서, p.125.

44) 李泰極, 時調의 史的研究 (宣明文化社, 1974), pp.151 ~ 152.

李成桂의 세력을 뜻하고 ‘매화’는 고려의 왕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sup>45)</sup> 이 작품을 순탄하게 받아들여 이른 봄 梅花가 꽃필 것을 기다리는 한가로운 情緒의 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배경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스스로의 참모습을 잃기 쉬운 것이니까 말이다.

아무튼 이 작품이 지은이는 梅花를 찾아 헤매고 있다. 初章은 梅花를 찾는데 방해가 되는 條件이고, 中章에서는 그가 찾고 있는 對象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終章에서는 梅花를 찾겠다는 기대를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㉞ 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옵고  
내 마음 들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갈아야 울어 밤길 예눗다.

王邦衍은 端宗 때 사람으로 生沒年代는 未詳이다. 그는 義禁府都事로 廢位된 端宗을 寧越로 護送하였는데 호송한 후 돌아오면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달랠 길 없어 강가에 앉아 이 時調를 읊었다.<sup>46)</sup>

그러니 여기서 ‘님’은 端宗을 가리킨 것이 된다. 端宗을 謫所까지 護送하고 돌아오다가 시냇가에 앉아서 아픈 마음을 달래보려는데 그 물도 소리를 치며 흐르고 있음을 듣고는 더욱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지은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一般的으로 많이 보이는 忠君이나 戀君의 情을 읊은 작품으로만 볼 수는 없다. 悲運에 쫓기고 억울한 귀양을 가게 된 端宗의 처지를 더욱 깊이 슬퍼하면서 不義와 非理에 대한 울분과 弱한 者(端宗)에 대한 동정과 哀慕의 情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보고 싶다. 君臣의 關係가 아니라 人間으로서의 情感이 더욱 크게 作用되었다고 보고 싶다.

임을 離別한 心情을 흐르는 냇물에 부치어 노래한 점이 자연스럽고 또한 쉬운 말을 골라 쓴 점도 높이 사야할 작품이다.

初章은 작품 속의 말하는 이가 방금 體驗한 사건을 표현했고 여기서 ‘千萬里 머

45) 柳聖圭, 전계서, p.242.

46) 秦東赫, 전계서, p.137.

나면 길'은 강원도 영월 길이요, 主題의 핵심은 '고운 입'에 있다. 이 고운 입의 개념은 분명히 君臣有義의 大綱에 人臣으로서 不義에 희생된 人君에 대하여 바친 최대의 愛情과 공경의 뜻까지를 아울러 가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心情은 「여의움고」의 말씨에서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다.

中章은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情緒를 나타낸 장소가 '넷가'다. 그리고 우리의 비분을 참말로 멀고 깊은 곳으로 끌고 간다. 그가 端宗을 유배시키는 일을 職分으로서는 다 하였지만 사람으로서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은 이는 職分과 사람사이에 罪를 의식할 때 自然으로 돌아간다는 심리 사실을 표현했다. 終章은 넷물의 흐름을 묘사하여 작자의 內面狀態를 드러내는 형상화의 구실을 한다. 넷물의 영원한 흐름 속에서 씻을 수 없는 죄책을 흘러 보내고자 하는 것이다. 진실로 이 時調는 사람의 도리로서 君臣의 關係를 얼마나 절실한 한계에서 읊었는지를 알 만하다.

㊦ 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자시는 창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뉘곤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紅娘은 宣祖 때 함경도 鏡城 妓生으로 1573년(宣祖 6년)에 崔慶昌이 北評事로 있을 때에 친했다고 한다. 崔慶昌이 이듬해에 서울로 올라오게 되자 紅娘이 隻城까지 배웅하고 威關嶺에 이르러서 이 時調를 지어 崔慶昌에게 보냈다고 한다.

教科書에 收錄된 時調는 임에 대한 愛情을 읊은 時調다. 生命感이 넘치는 순수한 고유어로, 아름다운 사랑을 구슬처럼 곱게 엮어 표현한 서정시다.<sup>47)</sup>

'뒷버들'을 사랑의 상징으로 보낸 것은 여성다운 섬세하고 날카로운 감각이라 하겠다. 初章의 도치법은 호흡의 긴박함과 리듬의 변화감을 일으켜 준다. 그리고 中章의 '날인가도'에 담긴 간곡하고 은근한 情은 비할 수 없는 멋있는 기교라 하겠다.

47) 李能雨, 전계서, pp.231 ~ 232.

또 ‘밤 비에 새 뉘곤 나거든’은 뛰어난 이미지다. 初章은 글 속의 말하는 이의 행위를 表現한 것이고 中・終章은 初章의 행위의 목적이나 이유를 表現한 것이며 입에의 기대나 요청이라고도 볼 수 있다.

글 속에 말하는 이는 입과 別離하여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이 작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事情은 문맥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 山家에 봄이 오니 自然히 일이 하다.  
앞내에 살을 매고 울밑에 외씨도 넣고  
내일은 구름 걸거든 약을 캐러 가리라.

李鼎輔(1693~1766)는 英祖 때의 學者로 글씨와 漢詩에 能했고 時調에는 大家의 경지에 이르러 作品 93首를 남겼다. 그는 咸鏡道 觀察使, 弘文館 大提學, 刑曹判書 등을 지냈고, 호는 士受로 代表的인 兩班 時調作家로서 그의 作品은 實生活과 긴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졌다.<sup>48)</sup> 兩班 出身作家로서 辭說時調를 지은 것도 特記할 일이겠으나 內容 主題面에서도 매우 多樣的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체로 兩班作家들은 辭說時調도 짓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主題도 단조로왔으나, 李鼎輔는 여러 부면을 고루 다루었으니 그의 人品이나 性格이 多情多感한 증거가 된다고 하겠다. 그의 時調의 主題를 보면 懷古, 愛情, 嘆老, 自然 등 여러 部面이었다. 또 그의 時調를 보면 平時調가 63首, 엇시조가 18首, 辭說時調가 12首로 되어 있다.<sup>49)</sup>

教科書에 실려 있는 時調는 鄭松江의 訓民歌처럼 農夫時調로 그는 農民들과도 호흡을 같이 하였고 兩班이면서도 農事에 몸소 종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農夫歌는 3首가 전하는데 教科書 作品 外에 1首를 들면

올 여는 물 실어 녹코 綿花 밧 비오리라  
올 밋되 외를 싸고 보리능거 點心호소  
뒷집의 비즌 술 너어거든 츄즈남아 가져오시  
(海東歌謠周氏本 371)

48) 李弘植, 國史大事典(百萬社, 1975), p.1210.

49) 鄭炳昱, 전계서, p.706.

教科書 作品을 보면 初章에는 계절이 나타나 있는데, 이 계절적 背景은 다음 句의 원인이나 條件이 된다.

中・終章은 初章에서 ‘일이 하다’를 具體的으로 늘어 놓은 것이다. ‘앞내 살매기’, ‘울밑 외씨 뿌리기’, ‘산에서 약캐기’ 등 구체적 장면과 동작이 들어 있지만 서로 흩어져서 統合된 場面을 묘사하지는 못했다. 山村의 自然 속에 묻혀 아무 慾心없이 살아가는 平和스런 정경이 잘 나타난 時調다. 부지런히 일하는 山村生活도 自然의 一部分이 되어 마냥 소박하고 순수하기만 하다.

㊸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메고 가자스라  
내 논 다 매어든 네 논 좀 매어주마  
올길에 뽕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鄭澈(1536 ~ 1593)의 號는 松江으로 27 세에 文科에 壯元하고 修撰 直提學, 承旨 등을 거쳐 45 세 때에는 江原道 觀察使가 되었고 刑曹, 禮曹判書 등을 지냈다.

松江은 歌辭文學의 第一人者이며 時調에 있어서도 현재 80 餘首가 전하고 있다.<sup>50)</sup> 가장 일찌기 많은 時調를 지어서 時調를 비로소 生活化한 作家였으며 主題面에 있어서도 多樣하게 다루었다. 松江 이전의 時調 作家들은 作品數도 많지 않았고 主題도 단조로왔고 그저 生活의 餘技로만 알았으나 松江은 他者가 많이 引用한 궁극적인 背景이나 故事를 흔히 쓰지 않았고 우리 국어의 言語美를 최대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sup>51)</sup>

또 松江의 時調는 內容이 平易하면서 他人으로 하여금 共感을 주며 親近感을 주는 경향이 짙으며 流配詩歌도 많이 전하고 있다.

松江 時調의 主題를 보면 閑情, 戀君, 道德, 修養, 教訓, 懷古 등 다양하다.<sup>52)</sup>

松江의 訓民歌 16 首는 그가 江原 監司 때에 江原道民들의 教化 啓蒙을 위하여 儒教的인 內容으로 지었다. 江原道는 山間 지방이기 때문에 交通도 불편하고 農土

50) 秦東赫, 전게서, p.156.

51) 朴晟義, 전게서, pp.581 ~ 582.

52) 徐中寬, 鄭澈의 訓民歌 指導論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어느 지방보다 倫理生活이 희박한 곳이었다. 그래서 松江은 江原道民을 教化하기 위하여 訓民歌를 지은 것이다. 訓民歌 16首는 모두 平時調로 內容은 父母, 君臣, 夫婦, 男女, 長幼, 朋友 등 五倫에 의거한 것으로 이중 父母 恩惠에 관한 노래를 하나 들어 보면

아버님 날 나흐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곳 아니시면 이몸이 사라질가  
하늘 ㄹ뵈 ㄹ업손 恩德을 어디다혀 감사오리

이것은 訓民歌 제 1首로 五倫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父子의 관계임을 말하고 있다.

다음은 教科書에 收錄된 時調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이 노래도 鄭澈의 訓民歌中 1首로 勸勉을 강조한 작품이다. 이 노래는 倫理 問題를 다룬 것이라기 보다는 勸勉 誠實을 노래한 것이다.

初章 첫구에 ‘다 새거다’는 표현이 바지런함을 재촉함이에요. 새벽 일찍 호미 매고 논밭으로 나가 김을 매고, 돌아오는 길에 뽕을 따다가 누에를 먹여 보자고 하였으니 어찌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는가. 또한 내 논을 다 매고 나서 너의 논을 매어 주겠다는 淳俗은 利己에만 흐르기 쉬운 性情을 感發케 하여 淳朴한 본연의 自我를 회복케 하는 悅服이 감돈다.

이 作品의 初章은 時間的 背景을 나타내고 現實을 노래한 반면 中章과 終章은 마음 속으로 그날 하루 일과를 생각한 것이다. 즉 날이 썰 무렵에 깨서 그날 하루의 바쁜 일과를 잠깐 마음 속에 계획한 것을 표현했다. 이 계획은 어제도 있었던 일이 반복이고, 내일도 되풀이 될 일이며, 일상 생활 그 자체다. 따라서 이 作品은 作品 속의 計劃이 實踐되었는지의 與否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計劃을 실천한 것으로 확신하게 된다. 이 짧은 作品 속에 하루의 作業過程은 시작·중간·끝을 표현하면서 하루의 連續的인 동작이 우리 눈 앞에 선한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㉔ 朔風은 나무 끝에 불고 明月은 눈 속에 찬데

萬里邊城에 一丈劍 깊고 서서

긴 파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金宗瑞(1390 ~ 1453)는 端宗 때 忠臣으로 世宗 때 六鎭을 개척하여 두만강을 경계로 하여 국경선을 확장했다. 그는 智勇을 겸비한 무신이었으나 王位를 노리던 首陽大君에게 擊殺당했다. 時調 2首가 전하는데 武士로서 忠國하는 豪放한 氣概가 가득히 담긴 時調로 武夫의 작품으로는 최초의 것이다.<sup>53)</sup>

教科書에 실려 있는 時調도 武夫로서 忠國하는 豪放한 氣概가 가득히 담긴 時調로 初章의 ‘찬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눈빛에 반사되는 달빛’ 등은 서로 결합하여 계절적,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잘 나타냈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는 흔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의 시각적 심상과 세찬 바람 소리의 청각적 효과를 자아내며 ‘눈에 반사되는 달빛’과 결합하여 추위를 실재로 느끼는 것같은 인상을 준다.

이 時調 전편에 흐르고 있는 詩想은 사내 大丈夫의 씩씩한 기상이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작품이다. 변방을 지키는 장군의 씩씩한 기상을 느낄 수 있다. 휘몰아치는 매운 바람 앞에 갑옷을 입고 밝은 달을 우러러 소리치는 大丈夫의 장쾌한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初章에는 북방 변두리의 추운 정경이 中章에는 장군의 늠름한 모습이 보이는 듯하고, 終章에는 장군의 용감한 기상과 忠誠心이 잘 표현되어 있다.

中章의 ‘만리변성’은 이 작품의 全體的 장소를 뜻한다. 終章은 위에서 말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말은 임무에 대한 넘치는 自身感과 사명감을 표현한 것이다.

북방 육진을 개척하여 국경선을 확장한 장군의 용맹스럽고 호걸스러운 기상이 엿보인다. 낱말 하나하나에 씩씩한 기백이 넘쳐 흘러 남아다운 風格을 갖춘 時調다. 읽기만 해도 절로 힘찬 感動이 일어난다.

다음은 이 時調의 지은이 金宗瑞가 지은 시조 1首를 더 살펴본다. 이 作品도 教科書 작품과 마찬가지로 장군의 씩씩한 氣概가 들어 있다.

53) 李能雨, 전계서, p. 28.

長白山에 旗를 쫓고 豆滿江에 물을 씻겨  
석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스나회나  
엇더타 浚烟閣上 누 얼굴을 그릴고

(瓶窩歌曲集 325)

㉔ 三軍을 練戎하여 北狄南蠻 破한 후에  
더러인 칼을 씻고 洗劍亭 지은 뜻은  
위엄과 덕을 세우서 四海 안녕함이라.

金壽長(1690 ~ 1772)은 平民歌客으로 호는 老歌齊이며 金天澤과 쌍벽을 이루었고 1763년(英祖 9년)에 時調集 「海東歌謠」를 엮었다. 그는 海東歌謠의 各作家들의 作品 뒤에다 各作家에 따른 作品 後評을 기록하였는데 그 後評은 곧 老歌齊의 主觀的 詩歌觀을 披瀝했다고 볼 수 있다.

時調文學史上 여러 사람들의 時調評을 쓴 사람은 老歌齊가 처음이면서 으뜸가는 위치에 선다고 할 수 있다.<sup>54)</sup>

時調는 그의 「海東歌謠」에 117首가 傳하고 있는데 老境의 作品이 많고 그 自身과 自然과 風流와 歌曲의 合流된 作品들이 많다고 한다. 그의 時調 117首를 보면 平時調가 79首, 엇時調가 15首, 辭說時調가 29首이다.<sup>55)</sup>

이처럼 엇時調와 辭說時調가 많은 것은 그가 時調를 지을 때 時調의 律格에 구애되지 않고 時調를 지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平時調들도 平時調의 기본 音數律에 벗어난 作品이 많음을 볼 때 音數律에 얽매이지 않고 時調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老歌齊는 平民歌客이요, 時調評論家라고 할 수 있는데 教科書에 실려 있는 作品은 마치 장군이 지은 時調처럼 전쟁을 싫어하고 平和를 사랑하는 民族性이 反映된 時調를 지었다.

54) 秦東赫, 전게서, p.295.

55) 秦東赫, 전게서, p.298.

나라의 모든 군사를 訓練시켜 北南의 오랑캐를 무찌른 뒤에 오랑캐들의 피로 더럽혀진 칼을 씻어버리고 병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洗劍亭을 지은 뜻은 威勢와 德으로 天下를 便安하게 하자는 것이다. 全體가 막힘이 없이 흐르는 말로 나라가 위태로우면 私事로운 일을 멀리하고 戰線으로 나아가는 悲壯한 결의와 愛國心이 엿보인다.

㉞ 아버님, 가나이다. 어머니 좋이겨오  
나라이 부르시니 이 몸을 잊었내다.  
來年の 이 時節와도 기다리지 마소서.

이 時調는 作者 年代未詳이다. 初章에서 말하는 이는 父母에게 別離의 決心을 알리고 있으며, 中章에서는 그와 같은 결심의 동기가 나라를 위한 짓임을 밝힌 것이다. 終章은 자신의 戰死나 殉國 또는 離別이 長期間 계속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作品에는 나라를 위한 忠誠을 나타내기 보다는 父母의 슬하를 마지막 떠나는 아들의 굳센 마음이 더 많이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新教科書에 새로 收錄(84년 3월간)된 黃眞伊 時調를 보기로 한다.

㉞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니 옛 물이 있을쏘나  
인걸도 물과 같아야 가고 아니 오노매라.

黃眞伊는 中宗 때 松都 妓生으로 詩書와 音律에 뛰어 났으며<sup>56)</sup> 女妓 가운데 代表的 時調詩人이라고 할만큼 그의 作品 모두가 훌륭한 內容의 것으로 作品의 數로나 作品의 質로도 단연코 제일이라 하겠다.

黃眞伊의 時調는 모두 6首가 傳하는데 이 中 3首는 靑山과 流水를 읊었고 또 3首는 임에 향한 愛情을 읊었다.

위의 時調는 1984년 新數科書에 새로 收錄된 時調로 산은 옛날에 본 그대로의 산이지만 물은 밤낮 쉬지 않고 흐르니 옛날 물이 아니다. 인제 물과

56) 鄭炳昱, 전제서, p.718.

같이 한 번 가면 다시 아니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다재 다능한 名妓 黃眞伊가 자기의 곁을 떠나간 인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아쉬움과 덧없는 인생을 읊은 時調다. 그의 은근한 態度와 女性다운 따뜻한 愛情感이 깃들어 있어 多情多感함을 느낀다.

#### ㉔ 尹善道の 五友歌

尹善道(1587~1671)는 號가 孤山으로 古時調史上 最高의 位置에 오르는 作家로 가장 代表的인 作家로 누구나 共認하고 있다.<sup>57)</sup>

먼저 孤山의 生涯를 살펴보면 그는 1587년(宣祖 20년)에 漢陽에서 出生하였다. 孤山은 11歲에 山寺에 들어가 學問에 힘썼고 26歲 때에는 進士試에 及弟하였으나 光海君 辭政 때라 宦路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32歲 되던 1617년(光海君 9년)에는 李爾瞻이 國柄을 잡고 國政을 어지럽히기에 그를 彈劾하는 上疏를 올려 朝野에 주목을 끌었으나 이로 인하여 咸鏡道 慶源으로 流配되었고 다시 慶尙道 機張으로 移配되었다가 仁祖即位로 8年間の 流配生活이 풀려 金吾郎에 불리었으나 나가지 않고 海南에서 隱居하였다. 그는 41歲인 仁祖 6년에 上京하여 別試에 及弟하고 鳳林大君의 師傅가 되어 工曹佐郎, 刑曹正郎을 兼職後에 星山縣監으로 左遷되었다가 削職되어 鄉里로 돌아갔다.<sup>58)</sup>

1636년(仁祖 14년) 47歲 때에는 丙子胡亂이 일어나자 鄉族을 모아 배를 타고 江華에 이르렀으나 벌써 함락되었고 三田渡 소식을 듣고 비통한 마음으로 海南에 도착하여 나라의 恥辱을 견디지 못하여 耽羅로 隱遁하는 길에 甫吉島를 들러 秀麗한 山景을 보고 그곳을 芙蓉洞이라 이름짓고 江湖生活을 시작했다.<sup>59)</sup>

59歲 때 仁祖 16년에는 丙子亂 때 임금을 받들어 모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소를 입어 경북 盈德에 流配되었다가 이듬해에 풀려 海南에 들어가 金鎖洞에서 隱居하고 있을무렵 「山中新曲」「山中續新曲」을 지었다.

中學校 教科書에 실려 있는 五友歌는 山中新曲 18首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日

57) 李相寶, 전게서, p.277.

58) 秦東赫, 전게서, p.170.

59) 秦東赫, 전게서, p.170.

常生活에서 詩興을 느낀 것과 單調로운 生活環境에 변화를 주고 기분을 전환시키는 것으로 技巧가 세련되고 우아하며 자연 속에 깊이 몰입하여 자연의 美를 발견하고 自己의 生命과 渾然一體가 되어 노래한 것이다.<sup>60)</sup>

孝宗이 王位에 오르자 修身治國의 道를 論한 上疏를 올리고 64歲에 다시 芙蓉洞으로 들어가 「漁夫四時詞」를 지었다.

그의 文集으로는 「孤山遺稿」가 있는데 이것은 正祖가 孤山의 功績을 생각하여 인쇄한 것이라 한다.<sup>61)</sup>

한마디로 孤山은 어려서부터 총명이 뛰어나 근 40년 동안 치열한 당쟁 속에서 여러 차례의 짤막짤막한 벼슬살이와 거듭당한 긴 流配 生活과 落鄉으로 隱居의 생활을 보내는 동안 時調는 孤山이 으뜸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훌륭한 작품을 남겼다.

中學校 教科書에 收錄된 五友歌 6首는 1642년(仁祖 20) 盈德 流配所에서 풀려 1652년(효종 3년) 왕명으로 다시 벼슬에 나가기까지 五十代 후기부터 六十代 전기 약 7·8년 동안 鄉里인 海南에 살면서 지은 작품으로 지은이의 文學的 황금기의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작품을 보기로 한다.

- ㉠ 내 벗이 몇이나 하니 水石과 松竹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커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五友歌의 첫 首인 序詩다. 人間世上을 떠나 오직 自然山中에서 自然을 사랑하고 自然을 벗으로 삼아 모든 物情을 다 잊어버리는 作者의 心情이 나타나 있거니와 그 중에도 맑고 그치지 않는 물, 굳센 돌, 변하지 않는 솔, 곧은 대나무, 밝은 달, 이 다섯 가지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처럼 다섯 개의 의인화된 사물들을 전체적 장면으로 제시된 ‘동산’에 의하여

60) 朴晟義, 孤山時歌 (正音社, 1971), p.13.

61) 李能雨, 전게서, pp.108 ~ 111.

서로 결합되어 독자의 마음 속에 아름다운 그림을 만든다.

독자가 이 作品의 初章과 中章을 읽을 때 이와같은 그림이 떠오르면 그 무한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終章은 中章에서 말한 다섯 벗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終章은 時調의 形式에서 요구되므로 덧붙인 것에 불과하며 깊은 뜻은 없다고 보아진다.

- ㉠ 구름 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종고도 그칠 뉘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이 時調의 主題는 물이다. 東洋에서는 일찌기 물을 準이라 쭈이라 하여 天下萬物을 재고 달아보는 기준으로 해석한 때도 있었다.<sup>62)</sup> 이러한 물을 지은이는 구름과 바람에 견주면서 한층 그칠 때가 없는 不撓不屈의 性品을 취하여 노래하고 있다. 孤山의 물은 적어도 여기에서는 연면히 활동하는 상태이며 정지와 정체성을 띤 물이라 생각된다. 물이 깨끗하고도 끊어짐이 없는 特徵을 구름과 바람의 특징과 대조시키고 終章에서는 앞에 든 사물의 결합이 물에는 없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가 물을 좋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 꽃은 무슨 일로 피며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증지 아닐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이 時調의 主題는 돌이다. 여기의 돌은 바위다. 바위의 굳세고 언제나 변치않는 美德을 나타내기 위하여 꽃이 쉬이 지는 것과 풀이 봄여름 파랗던 것이 어느덧 가을이 되어 변화한다는 것을 대조하여 말했다. 그 裏面의 뜻은 굳센 바위같이 변하지 않는 節介를 가져보자는 뜻인 듯하다.

그 表現에 있어서 初章과 中章은 對句的이나 ‘꽃은’과 ‘풀은’, ‘무슨 일로’와 ‘어이하여’가 서로 對句이고 ‘피며서 쉬이 지고’는 ‘피면서 쉬이 지고’보다 時

---

62) 李相寶, 전계서, p.279.

間的으로 단축된 느낌이며 ‘푸르는 듯 누르나니’도 ‘푸르다가 누르나니’보다 순간적이다. 이와같이 孤山은 꽃이 피고 지는 일과 색의 변화를 動的으로 묘사하여 눈 앞에 완연히 보이는 듯한 실감을 주었다.

㉔ 작은 것이 높이 떠서 萬物을 다 비취니  
밤중에 光明이 너만한 이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 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初章과 終章은 지은이가 달을 좋아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中章은 初章에서 말한 달의 밝은 정도를 강조한 것이다. ‘보고도 말 아니’함은 아무 말 없이 실천함으로써 信義를 지키는 벗을 상징하여 말없고 믿음직한 친구가 좋다는 것이다.

달은 太陰의 精으로 밤의 중심에 있다. 만상에 빛을 주되 말을 하지 않는 군자풍에 중점을 두고 노래하고 있다.

初·中章은 달의 外形描寫인데 암흑에 비치는 高邁한 인격으로 보았고 終章은 內面描寫로 되어 있다.

㉕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솔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九泉에 뿌리 곧은 줄을 글로 하여 아노라

가을이 되고 겨울이 닥쳐 눈서리가 오면 모든 꽃과 잎은 다 지거늘 그 모진 바람도 눈서리도 이겨 꺾꽂하게 색도 변치 않고 서 있는 소나무를 찬양한 노래다.

初章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 다른 나무들의 속성을 보인 것이고 中章과 終章은 지은이가 소나무를 다섯 친구들의 하나로 여기는 이유를 말한 것이다. 특히 中章에 ‘솔아’하고 외치는 것은 소나무에 生命을 주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作者와 솔 사이에 親密感을 느끼게 한다.

소나무는 常靑의 나무로 옛 시가에 節介의 상징으로 노래되어 왔다. 成三問의 時調 獨也靑靑이 생각난다. 계절의 변화에 초연한 소나무는 죽히 恒心의 본이다.

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뒤 시기며 속은 어이 비었는데.  
저렇게 四時에 푸르니 그를 동아하노라

이것은 대나무를 벗으로 하는 까닭을 읊은 작품이다.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친구는 마음이 곧으며 虛心坦懷하여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다.

中章과 終章은 지은이가 대나무를 벗으로 선택한 이유를 밝힌 것이며, 初章도 대나무를 친구로 형태와 성질의 특수함을 말하고 있지만 대나무를 친구로 선택한 이유와는 관계가 없다.

대나무를 찬양하면서도 「대」란 말은 한마디도 쓰지 않고, 또 대나무를 나무냐, 풀이냐 하는 데까지 치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대나무는 虛心內剛의 상징으로 선비들이 즐겨 벗하던 바이다. 四君子에도 梅蘭菊竹이라고 하여 깨끗한 지조를 기린다. 이렇게 볼 때 五友歌의 主題精神은 人間에 對한 德性的 모범을 自然 속에서 設定 提示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라) 3學年 古時調 指導

##### ① 指導方向

學生들은 이미 1學年에서 宣祖大王外 6首, 2學年에서 李穡 作品外 8首의 古時調를 學習하여 古時調에 대한 기초 교양을 습득했다.

이어서 3學年에서는 南怡將軍外 7首의 平時調와 1首의 옛時調를 題材로 하여 祖上의 國家와 民族을 사랑하는 憂國衷情과 自然親和的인 人生觀, 임 그리운 절절한 사연을 소개한 內容을 學習함으로써 時調文學에 대한 교양을 深化하게 된다.

또 時調의 鑑賞을 통하여 풍부한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아름다운 社會生活을 누리며 憂國衷情, 自然親和思想 田園生活의 낭만을 노래한 古時調의 鑑賞을 통하여 先人들의 멋을 알고 祖國愛와 國土愛를 배우도록 하며 先人들의 人生觀 내지 生活觀을 이해하여 주체적인 國民精神을 함양해야 한다.

훌륭한 國文學 유산에 대하여 자부과 긍지를 가지고 그 遺産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에 그 뜻이 있다.



② 學習目標

㉠ 時調의 形式과 特徵을 알고 時調가 現代에 傳承된 唯一한 國文學 形態인 까닭을 안다.

㉡ 時調를 鑑賞할 수 있다.

㉢ 各 時調의 素材와 主題를 파악할 수 있다.

㉣ 時調의 분위기에 어울리게 낭독할 수 있다.

㉤ 時調에 나타난 표현 기교를 안다.

㉥ 時調에 나타난 先人들의 祖國愛와 國土愛를 찾아 본받도록 한다.

③ 作品 指導의 實際

㉦ 長劍을 빼어 들고 百頭山에 올라보니

大明天地에 腥鹿이 잠겼어라

언제나 南北風塵을 헤쳐 불꼬 하노라

南怡(1441 ~ 1468) 將軍은 1457년(세조 3년) 17歲에 武科에 狀元하여 西北邊에 建州衛를 征伐하고 李施愛의 亂을 平定하고 27歲에 兵曹判書가 되었다.<sup>63)</sup> 1468년 睿宗이 즉위한지 얼마 안 되어서 禁中에서 숙직하던 어느 날 밤에 彗星이 나타난 것을 보고 남이가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이 갈릴 징조다”라고 말하는 것을 柳子光이 가 엿듣고 逆謀를 한다고 모함하여 誅殺당했다.<sup>64)</sup>

그의 時調는 2首가 전하는데 모두 忠國豪氣를 읊었다. 그의 작품 1首는 다음과 같다.

赤兎馬 슬지게 먹여 豆滿江에 싹겨세고

龍泉劍 드는 칼을 선뜻 썬쳐 두레메고

木夫의 立身揚名을 試驗할까 호노라

(歌曲源流 143)

63) 鄭炳昱, 전게서, p.693.

64) 李弘植, 전게서, p.334.

忠國하고 豪氣가 넘치는 작품인데 教科書 작품도 젊은이다운 기개가 팔팔하다. 여기에서 ‘長劍’은 지은이 신분을 ‘百頭山’은 무인의 기상을 ‘大明天地’는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을 ‘腥塵’은 國亂을 ‘南北風塵’은 국난의 원인을 알려주는 소재다. 이 시는 오직 나라와 겨레만의 최상의 것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가 전개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이 백두산으로 경계지어지는 北胡와 南蠻과의 대응에서 우리 나라를 大明天地로 노래한 데서도 잘 느껴진다. 또 初章에 나타난 激心도 敵의 침노로부터 나라와 겨레를 태평히 하겠다는 높고 큰 포부가 보이는 바 그의 漢詩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있다.

「白頭山石磨刀盡  
頭滿江流飲馬無  
男兒二十未平國  
後世誰稱大丈夫」<sup>65)</sup>

⊕ 축석루 밝은 달이 論娘子의 녀이로다.  
向國한 一片丹心 천만 년에 비치오니  
아마도 女中忠義는 이뿐인가 하노라.

이 時調는 임진왜란 때 순국한 義妓論介의 愛國忠節을 懷古風으로 노래한 작품으로 지은이를 알 수 없다.

壬辰亂은 韓國歷史上 未曾有의 戰亂이었다. 또한 壬辰亂은 우리 先祖들에게 精神的 物質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준 戰亂이기도 하다. 7年間에 걸쳐 全國 坊坊谷谷은 倭人들의 말발굽에 초토화되고 말았다. 이처럼 처참했던 戰亂이었는데도 壬辰亂을 노래한 時調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教科書 時調처럼 壬辰亂 때 論介와 관계된 時調는 4首가 전하는데 모두 作者가 未詳이다. 그중 1首를 들면 다음과 같다.

65) 知退堂集, 東閣雜記

말고말근 江南水야 壬辰이를 네 알니라

忠信과 義士덜이 몇몇치나 싸저난고

아마도 女中丈夫는 論娘子가 하노라.

(教坊歌謠)

教科書의 作品은 지은이 자신이 忠節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남의 忠節을 기리면서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달’은 ‘논남자의 녀’이라고 隱喻한 것은 이른바 感情移入에 의한 표현이다. 달빛이 환한 것처럼 논 남자의 꽃다운 영혼은 영원히 빛난다.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 불타는 애국심으로 敵將과 함께 남강에 몸을 던진 論介, 그 忠誠과 의리는 역사에 길이 빛나며 오늘날 우리 가슴에 살아 남아 빛나고 있다.

(단) 泰山이 높다 하여도 하늘 아래 뉘이로다.

河海 깊다 하여도 따 우에 물이로다.

아마도 높고 깊을손 聖恩인가 하노라.

金綵(1488 ~ 1534)는 1511년(중종 6년)에 文科에 及弟하여 弘文館 正字 副提學에 올랐으나 己卯土禍 때 流配되어 15년간 流配生活을 하는 동안 父母 모두 別世했다. 그는 이와같이 오랜 流配生活을 벗어나고픈 心懷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여기를 더귀삼고 더귀를 에 삼고저

여기 더귀를 멀게도 삼길시고

이몸이 蝴蝶이 되어 오명가명 하고저

(自庵集)

1533年 流配에서 석방되자 禮山에 있는 父母墓로 달려가서 追服을 입고 侍墓하다가 別世했다. 그는 글씨가 뛰어나 李朝初期 四大書藝家中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sup>66)</sup> 그의 作品으로는 時調 5首와 「化田別曲」이 「自庵集」에 傳하고 있다.

66) 學園社刊, 世界百科大事典(4) (學園社, 1983), p.284.

教科書 作品을 보면 임금님의 은혜를 ‘泰山, 河海’와 대조되게 하여 크고 깊음을 강조한 것으로 儒敎思想을 觀念的으로 나타낸 時調다.

임금은 백성의 어버이로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고 보살핀다. 이와같은 임금의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훌륭하다고 지은이는 찬미하고, 동시에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다짐한다.

임금에 대한 고마움은 조국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다. 나를 낳고 키워준 부모님과 같은 임금이나 조국에 대하여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이 곧 애국심이다.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옛 선비들의 모습이 떠 오른다.

㉔ 두류산 양단수를 예 듣고 이제보니  
桃花 뜬 맑은 물에 山影조차 잠겼어라  
아희야, 武陵이 어디오. 나는 옌가 하노라

曹植(1501 ~ 1572)은 어려서부터 性理學에 통달하고 인품이 뛰어났다. 號는 南冥으로 敬義를 신조로 삼고 사신 분으로 李滉등에게 천거되어 여러 차례 벼슬이 내려졌으나 모두 사양, 지리산에 들어가 연구와 후진 양성에 전력했다. 1566년(명종 21년) 왕의 부름으로 思政殿에 나가 임금을 뵈고 治亂의 도리와 학문의 법을 글로 올리고 다시 산으로 들어갔다.<sup>67)</sup> 지은이는 당대의 名儒로서 그의 作品으로는 南冥歌, 王弄歌, 勸善指路歌 등이 있으나 傳하지 아니하고 다만 時調 3首가 전할 뿐이다. 그는 一生 동안 초야에 묻혀 임금의 총애를 받은 바 없으면서도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임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은 時調를 짓기도 했다.

三冬에 벼웃 입고 岩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별뫼도 편 적이 없건마는  
서산에 해 지다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教科書 時調의 소재는 ‘두류산, 양단수, 도화, 물, 산영’인데 이것들은 ‘두류산 양단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소재다. 즉 이런 소재들을 동원하여 두류산 양단수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다.

67) 李能雨, 전게서, p.44.

그리고 이 時調에 나오는 ‘武陵’은 중국인 陶淵明이 지은 「桃花源記」에서 나온 말인데 중국 핏나라 때 湖南武陵의 한 어부가 배를 저어 가다가 복숭아 꽃이 떠 내려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따라가 보았더니 어떤 굴이 나타났다. 굴 속에는 핏나라의 난리를 피하여 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곳은 얼마나 살기가 좋았던지 그 동안 바깥 세상의 변천과 많은 세월이 흐름을 몰랐다고 한다. 흔히 武陵은 이상향, 별천지 뜻으로 쓰이는데 우리 선인들은 아름다운 경치에는 흔히 도화를 등장시켰다.<sup>68)</sup> 이는 중국 전설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 생각한다.

初章에서는 頭流山과 兩端水를 그 조화에서 감흥하더니 中章에 이르러 ‘도화 뜬 맑은 물에 잠겨 있는 山影’을 노래했다. 初章에서는 頭流山과 兩端水를 ‘있다’는 존재의 차원에서 자연을 객관적으로 보았고, 中章에서는 움직이는 상태로서의 산수의 현상의 차원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하여 끝으로 아리한 자연의 지경에 동양인의 정신적 이상향이었던 武陵桃源의 황홀한 경지에 젖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세속을 외면한 채 오직 自然에 묻혀 自然과 더불어 친히 지내며 유유 자적하는 지은이의 낭만적인 생활의 멋을 찾을 수 있겠다.

㉠ 샷갓에 도롱이 입고 細兩中에 호미매고  
山田을 훑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牛羊을 몰아 잠든 나를 깨와다.

金宏弼(1454 ~ 1504)은 1494년 參奉에 천거되고 刑曹佐郎이 되었으나 戊午士禍 때 流配되었다가 甲子士禍 때 처형 당했다. 그의 時調는 「靑丘永言」에 牧歌의 時調 1首만 전한다.<sup>69)</sup>

계절은 여름철 샷갓에 도롱이를 차려 입고 비 오는 중에 밭을 매는 농촌의 정경이 보이는 듯하고, 이처럼 한창 바쁜 농사일에도 녹음 밑에 누워 낮잠을 즐기는 한가롭고 여유있는 모습, 목동이 소나 양을 몰고 가는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정경이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 주는 듯하다. 세속의 먼지를 떨치고 전원으로 들어

68) 朴晟義, 전게서, pp.572 ~ 578.

69) 서울大學校 東亞文化研究所編, 전게서, p.147.

가 발같이 하며 분수대로 素朴하게 살고자 하는 지은이의 牧歌的인 생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㉞ 환구름 푸른 내는 골골이 잠겼는데  
秋霜에 물든 丹楓 꽃도곤 더 좋아라.  
天公이 나를 위하여 되빛을 꾸며 내도다.

金天澤의 號는 南坡로 「靑丘永言」을 1727년(英祖 3년)에 엮어냈다. 平民出身으로 平時調 75首가 傳하고 있는데 平民作家들이 흔히 잘 짓는 時調나 辭說時調는 한 수도 없는 것이 特徵이다.<sup>70)</sup>

靑丘永言은 古時調를 가장 많이 실은 時調集으로서 作品 전체를 曲調에 따라 엮었다. 靑丘永言은 그 후에 계속 엮어진 다른 時調集들에 귀감적 역할을 했고 그것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하여간 南坡는 흠어진 先民들의 文化遺産인 時調들을 알알이 실에 꿰어 보배로 만든 공로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하겠다.

南坡가 지은 時調를 살펴보면 남의 時調를 追從하여 지은 것은 별로 없고 어디까지나 寫實性을 지닌 作品들이 많은데 그 중 한 예를 보면

雲霧이 오르전들 노래업시 어이하며  
蓬島로 자자하니 舟楫을 어이하리  
출하리 山林에 主人되야 이 世界를 니즈리라.  
(靑丘永言珍本 262)

教科書에 실려 있는 時調도 自然美를 찬양한 것으로 初章은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환구름과 푸른 연기는 골짜기마다 아름답고 신비하게 잠겨 있는데, 中章은 가을의 찬서리를 맞아 울긋불긋하게 물이 든 단풍은 봄철의 꽃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가을 서리에 물든 단풍의 아름다움을 봄꽃과 재미있게 비유한 서정시다. 自然의 아름다움에 몰입하여 無我之境의 환희를 맛보는 지은이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참

70) 秦東赫, 전게서, pp.276 ~ 293.

으로 비단에 수를 놓은 듯한 뉘빛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다.

- ㉔ 뉘는 높으나 높고 물은 기나길다.  
높은 뉘 긴 물에 갈 길도 그지없다.  
님 그려 젖은 소매는 어느 적에 마를꼬.

許橿(1520 ~ 1592)의 號는 松湖 또는 江湖處士다.

許橿의 時調는 松湖遺稿에 7首가 傳하는데 1541년(중종 36년)에 父親 流配에 從行하여 燕京에 갔을 때에 지은 2首와 1550년(명종 5년)에 父親이 洪原으로 流配時 陪行하여 지은 時調 1首가 있다. 나머지 4首中 2首는 父母에 대한 孝를 읊었고 西湖로 虛頭가 始作된 2首는 억울하게 죽은 父親을 그리워하여 지은 時調다.<sup>71)</sup>

教科書 時調의 內容을 살펴보면 임 찾아 헤매는 길이 험하기도 하다. 산 넘고 물 건너면 또 다른 산과 물이 앞을 막는다. 그러나 임을 찾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끝까지 임 찾아 가는 길을 쉬지 않으리라. 그리운 임은 어디에 있으며, 언제면 기다리던 임을 상봉하게 될 것인가? 임 그려 흐르는 하염없는 눈물은 소매를 적시고 또 적셔 마를 날이 없다고 했다. 임 그리는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이 전편에 넘친다.

- ㉕ 바람 불으소서 비 올 바람 불으소서  
가랑비 그치고 굶은 비 들으소서  
한길이 바다가 되어 님 못 가게 하소서

지은이가 未詳인 時調로 임을 못가게 하고 싶은 심정을 노래했다.

愛情은 人間이 가지는 가장 基本的인 것이 하나이며 또 愛情은 社會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의 시발점이라고 한다.

일찍기 古朝鮮 때 白首狂夫의 妻가 지었다는 公無渡河歌, 高句麗 琉璃王이 지었다는 黃鳥歌가 있음으로써 愛情을 內容으로한 詩歌가 지어졌음을 알겠고, 高麗俗

71) 秦東赫, 전게서, p.158.

謠에서는 더욱 眞率하고 赤裸裸한 感情을 아무 거리낌 없이 노래 불렀으니 가시리, 西京別曲 등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高麗時代까지만 해도 이처럼 愛情을 읊은 노래가 많았으나 조선조에 접어들어 儒教에 입각한 男女有別이 엄한 道德律로써 男女間의 사랑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時調에서는 지은이가 未詳인 作品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愛情에 관한 時調는 平民層이나 妓女層에서 널리 지어졌을 것이라 추측들을 하고 있으며,<sup>72)</sup> 平民層에서도 男性들보다 女性들이 더 많이 지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특히 愛情을 主題로 한 時調 가운데 有名氏 作品은 黃眞伊 作品이 뛰어나며 그외 대부분의 時調는 지은이를 모른다. 그러면 愛情을 主題로 한 時調 1首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말은 가려 울고 님은 날 잡고 아니 놓네  
夕陽은 재를 넘고 갈 길은 千里로다  
저 님아 가는 날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

(無名氏)

教科書에 실려 있는 時調도 임과 이별하기란 죽기보다 더 싫고 괴로운 일임을 노래했다. 그러나 임을 이별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서 임과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 時調에 보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離別이라면 차라리 하느님의 힘이라도 빌어서 얼마간 임을 붙들고 싶어 한다. 가랑비로는 임을 못가게 할 수 없으니 굵은 소나기가 쏟아져 큰 길이 온통 빗물에 잠겨 바다처럼 되는 날이면 임도 별 수 없이 머물러 있을 것이다. 부디 소나기를 퍼 부어 주어서 우리 임을 못 떠나게 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노래했다.

자신의 힘으로 임을 떠나지 못하게 할 수 없으니 비의 힘을 빌어서라도 임을 못 떠나게 하겠다는 발상도 특이하다. 그러나 ㅁ의 힘이 아닌 다른 힘(비)을 빌어서 임을 못 떠나게 한다는 것은 좀 나약한 면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72) 秦東赫, 전게서, pp.27 ~ 28.



㊦ 千歲를 누리소서 萬歲를 누리소서

무쇠 기둥에 꽃피어 열음 열어 따들이도록 누리소서

그 밖에 億萬歲 외에 또 萬歲를 누리소서.

이 時調는 作者 未詳인 엇時調로 中章의 글자수가 5·3·4·5·4로 平時調보다 한 句가 길다.<sup>73)</sup>

이 時調의 素材들은 ‘千歲, 萬歲, 무쇠 기둥, 꽃, 열음, 억만 세’ 등인데 ‘천 세, 만세, 억만세’ 등은 임의 長壽를 기원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다. ‘무쇠 기둥, 꽃, 열음’도 세월이 오래됨을 나타내기 위하여 등장한 소재이므로 결국 중심 소재는 ‘長壽’라고 할 수 있다.

오래오래 사시라는 뜻을 반복법과 과장법을 써서 표현한 것이다. 오래 사는 것은 人間의 本能이기도 한데 東洋에서는 오래 삶을 五福의 첫째로 쳐서 큰 福으로 알았다. 終章에 이르러선 漸層的인 效果도 거두었다. 또 ‘-소서’의 반복으로 脚韻의 效果를 거두었다.

여기에 나타난 임은 누군지 잘 모르겠으나 그분이 오래오래 사실 것을 기원하고 있다. 임금일까, 부모일까, 스승일까? 다소 과장되긴 했으나 지극한 정성이 들어 있다.

73) 鄭炳昱, 전계서, p.467.

### Ⅲ. 結 論

本研究는 濟州道를 中心으로 中學校 古時調 教育의 실태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古時調 指導方法을 提示하였다.

古時調 教育은 劃一的인 이미지로 흐르려는 感受(sesibility)나 觀念의 固定을 妨시켜, 유연한 感性的 認識을 확충시켜 主體적이고 발견적인 鑑賞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古時調 教育의 實態는 낱말 뜻, 구절 풀이식 해석적 지도에만 머물고 있어 關聯作品을 통한 統合的 指導가 이루어 지지 않아, 古時調의 鑑賞 教育은 千篇一律的이며, 지나친 分析 위주로 작품 자체의 鑑賞을 喪失해 버리는 등의 觀念의 固定化로 古時調 教育이 踏襲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 같은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하여 本稿에서는 一線教師의 教授實態, 學生의 學習實態를 調査分析하고 그 結果에서 얻어진 問題點을 토대로 教育의 現場에서 소홀히 다루는 鑑賞教育을 指導의 實際에서 提示하였다.

1) 學年別 古時調 指導方向 및 學習目標을 提示하여 教師 自身の 뚜렷한 指導觀을 갖고 古時調를 指導할 수 있도록 했으며, 學生들에게 古時調 學習에 대한 興味를 誘發시키기 위하여 關聯作品 指導 外에도 방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本 연구에서는 教科書 作品과 關聯된 聯關作品을 확충해서 지도함으로써 古時調에 대한 興味를 誘發시키고 教科書 작품을 理解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古時調를 다양하게 鑑賞할 수 있는 能力도 길러질 것이라고 보았다.

2) 그 時代의 情勢가 作品의 主題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時代 狀況이나 作者의 社會的 背景과 思想的 背景을 먼저 살펴본 후 作品 指導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古時調에 담겨진 內容을 살펴봄으로써 그 時代의 歷史的 背景, 그 時代의 生活相, 그 時代의 價値觀, 社會相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3) 古時調의 教育은 鑑賞教育을 위주로 해야 한다. 낱말 풀이나 구절 풀이, 소재나 주제 수사법 등에만 치우친 指導를 피하고 작품을 全體적으로 종합함으로써 古時調를 바르게 鑑賞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古時調도 詩이기 때문에 원래 설명

하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것이므로 몇 번이고 읽어 보며 그 內容과 形式을 살펴보고 그 作品만이 가지고 있는 眞價를 바로 알아야 한다.

또 作品 全體에 내포된 作者의 人生觀을 이해시켜 도덕적 가치 기준이 현대 문명에 밀려 흐려져가는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先人들이 지녔던 智慧의 샘을 찾아내고 그들의 理想과 執念을 돌이켜 생각해 보아 올바른 人間像이 오늘의 學生들에게 바르게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 믿는다.

4) 本研究는 中學校 教科書에 收錄된 古時調만을 濟州道를 중심으로 연구 對象으로 삼았기 때문에 研究의 一般性을 획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특히 本研究를 推進하는 도중 中學校 教科書가 改編되었으나, 2 學期 教科書는 나오지 아니하고, 1 學期 教科書만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983 年度版 舊教科書에 의해 研究를 완료할 수밖에 없었다. 改編된 '84년 제1 학기 教科書 중에서 古時調가 나온 것은 2 學年 1 學期 책 뿐이었는데 舊教科書와 比較해 본 結果 한두 작품을 除外하고는 꼭 같은 作品이었다. 앞으로 계속 研究하여 '84년 新教科書 제 2 학기 것을 가지고 補完할 것이며, 시간이 허락한다면 初·中·高 教科書에 실려 있는 古時調 全體를 對象으로 比較 分析하여 一線 教育의 現場에 보탬을 주고자 한다.

그리고 本研究에서 提示한 聯關 作品은 教科書에 收錄된 古時調 作品과 同一한 作家의 作品 중에서 선정했으나, 이 研究에 이어 앞으로는 現代 時調와 關聯해서 指導할 수 있는 方案도 研究하고자 한다.

## 參 考 文 獻

- 具滋均, 韓國平民文學史, 서울:文化社, 1955.
- 金敏洙 外, 國語教育論, 서울:一潮閣, 1982.
- 김성수, 국어과 교육 내용의 기본요소 체계·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1982.
- 金海星, 韓國詩論, 서울:진명문화사, 1975.
- 문교부, 중학국어 교사용 지도서(1)(2)(3), 서울:한국능력개발사 1982.
- 문교부, 중학교 새 교육 과정 개요, 서울:한국원호 복지공단, 1982.
- 朴東舜, 國語教育의 革命, 서울:배제출판사, 1976.
- 朴晟義, 韓國文學背景研究(上)(下)·서울:宣明文化社, 1973.
- 朴晟義, 孤山詩歌, 서울:正音社, 1971.
- 서울 大學校 東亞文化 研究所編, 國語國文學事典, 서울:新丘文化社, 1974.
- 徐中寬, 鄭澈의 訓民歌 研究, 서울: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1981.
- 심재완, 병와가곡집의 연구, 청대논문집, 1959.
- 梁淳秘, 丙子亂 題材時調攷, 제주대논문집 9집, 1978.
- 梁淳秘, 壬辰亂과 丙子亂 題材時調의 比較, 제대학보 18집, 1978.
- 梁重海, 靑丘永言 研究(1), 제주대논문집 12집, 1980.
- 梁重海, 靑丘永言研究(2), 제주대논문집 13집, 1981.
- 梁在赫, 死六臣의 時調文學 研究, 서울: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1981.
- 柳聖圭, 時調文學 入門, 서울:現代時調社, 1983.
- 劉昌淳, 古時調 新解, 서울:東國文學社, 1959.
- 李能兩, 李朝時調史, 서울:以文堂, 1956.
- 李秉岐 外, 國文學 全史, 서울:新丘文化社, 1970.
- 李秉岐, 辛夕汀, 古時調 鑑賞, 서울:博文化, 1958.
- 李相寶, 名時調 鑑賞, 서울:乙酉文化社, 1971.
- 李相寶, 女流時調作家論, 서울:國語國文學, 1955.

- 李商燮, 文學研究의 方法, 서울: 探求堂, 1975.
- 李仁模, 文體論, 서울: 宣明文化社, 1973.
- 李泰極, 時調概論, 서울: 새글社, 1971.
- 李泰極, 時調의 史的 研究, 서울: 宣明文化社, 1973.
- 李弘植, 國史大事典, 서울: 百萬社, 1975.
- 鄭炳昱, 時調文學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82.
- 鄭鈺東 外, 校註珍本 靑丘永言, 서울: 博文社, 1959.
- 秦東赫, 古時調 文學論, 서울: 螢雪出版社, 1981.
- 崔南善, 時調類聚, 서울: 漢城圖書, 1939.
- 學園社刊, 世界百科大事典(4), 서울: 學園社, 1983.
- 玄容駿, 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1, 9-2, 서울: 韓國精神文化 研究院,  
1980. 1981.

---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States and Teaching  
Methods of Old Shijoes Education**

**Chang Nam-su**

*Korean Language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yun Yong-jun

In this study, the actual states on teaching and learning of old shijoes put in middle school textbooks are investigat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analyzed; and on the basis of the controversial points which were gotten from the result of the analysis, a teaching method for an old shijo has been suggested.

It is true that we have taught students a old shijo till now in explanation of words, phrses, subject matter and theme, and in too deep analysis on it.

But in this study, out of learning by heart for the entrance exam, a teaching method emphasizing appreciation education, which is apt to be negligent in the very time when a shijo is taught.

In other words, classified by each school year, a teaching direction and a learning object has been suggested and in order to teach a shijo, real examples of teaching which make it the principal aim to appreciate are suggested when we teach a shijo.

And for various learning of old shijoes which are put in middle school textbooks, when other old shijoes except ones which are in the textbooks and connected with them are selected and learned.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May, 1984.

---

Such a teaching method can make students be interested in the old shijoes and learn them.

In selecting an old shijo connected with an old one that are put in the textbooks, some of the conncted old shijoes which the writer of them wrote are selected in this story, but I want you to study a teaching method in which students can learn old shijoes with modern poems and modern shijo in middle school textbooks.

Moreover, if you have time to go deep into the study of old shijoes and knowledge to study them, I think it is very valuable for you to analize old shijoes which are put in the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and compare one another.